



새로운 도전과 비상을 향해 힘찬 다짐

辛卯年 신년교례회
1천여 동문 대성황



개학 116주년·통합개교 65주년 기념 신년교례회

본회 林光洙회장은 지난 1월 12일 개최된 신년교례회에서 “모교가 국민에게 사랑 받고 세계의 중심으로 비상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면>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18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일 시 : 2011년 3월 18일(금) 오후 6시 30분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내 용 :

- ① 제13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 ② 2010년도 결산 및 2011년 사업계획 보고
- ③ 기타 안건 심의

◆회 비 : 없음.

※ 한정된 좌석(1000석 한정)과 식사 준비 관계로 반드시 사전예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동창회 155차·관악회 111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전 오후 5시부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관악춘추

얼마 전 여수에 가서 李舜臣장군 유적지를 돌아보는데, 안내하던 분이 亂中日記를 왜 ‘난중’이라고 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더니 부하들이 李舜臣장군에게 사소한 일을 건의하면 항상 그 일은 ‘난중’에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李장군은 핵심적인 일에 집중했다는 뜻도 있다.

宋 復교수는 임진왜란은 일본이 조선 8도 중 한강이남 4도를 차지하고, 중국이 이북 4도를 차지하는 조선 분할 전쟁이었는데, 李舜臣장군이 없었더라면 그때 나라가 없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전략가는 미야모토

무사시(宮本武藏)라는 사무라이이다. 그의 책 ‘五輪書’는 영어로 많이 번역돼 미국 저명 경영대학원에서 전략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李舜臣장군은 그와 비교가 안 되는 차원 높은 전략가이지만 외국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 어느 전쟁 전문가가 명량해전 승리는 세계해전 사상 가장 유명한 것인데, 국가브랜드 차원에서도 해외에 잘 홍보해야 될 것이라

고 했다.

중국인들은 文의 성현은 孔子, 武의 성현은 ‘손자병법’을 쓴 孫子 두 사람이 라고 하다가 문화혁명기간인 1974년에는 孔子가 죽어야 나라가 된다고 하여 孫子로서 孔子 배척 운동을 했다. 따라서 당시 중국의 성현은 孫子 한 사람뿐

이었다. 당시 손자병법이나 전략에 관한 책과 연구가 급증한 것은 물론이고 중국의 전략 수준도 대단히 높아졌다.

전략의 세계 2대 강국은 중국과 미국인데, 이들은 한국의 2대 교역 대상국이고, 앞으로 한국의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나라들이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도 전략의 수준을 최소한 이들 나라수준으로는 높여야 편히 살 수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국가전략이 가장 중요한 몇 나라 중의 하나이다.

지금은 자원전쟁, 환율전쟁, 무역전쟁, 심지어 물전쟁 등 각종 전쟁 잠재력이 증가하는 시대이다. 경쟁이나 전쟁은 전략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세계수준의 전략가를 많이 육성해야 하는데, 서울대가 앞장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宋丙洛는설위원)

세계적인 전략가를!



金仁圭·李基俊·孫一根·鮮于仲皓·安相洙·李賢宰·李吉女·吳然天·林光洙·金在淳·權彝赫·鄭元植·朴奉植·洪性大·李相禹등문 등이 시루떡을 나누고 있다.

“사회의 리더로서 새로운 변혁의 주체가 되길”



林光洙회장(左)·金滉植국무총리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金滉植(법학67-71)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 동문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학 116주년·통합개교 65주년 기념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방송인 俞靜雅(사회85-89)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선후배 동문들에게 “지난해는 나라 안팎으로 시끄럽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모교는 총장님을 중심으로 전 교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세계 10위권의 명문대학을 향해 힘차게 전진한 해였으며, 동창회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장학 발당 건립과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은 뜻깊은 한 해였다”며 “새해에는 모교에서 좋은 소식들이 자주 들려와 모교가 국민에게 사랑 받고 세계의 중심으로 비상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특히 “모교의 역사와 전통을 찾게 해준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의 성과로 우리 서울대는 세계 명문대학에 손색이 없는 자부



공로패 수상자와 함께 : 明泰鉉·金聖吉·河斗鳳·高昌錫(金英大 대리)·林光洙·李世榮·金正國·許鎮奎등문(사진 左), 鄭喜鎔·吳星煥·李廷益·林光洙·洪起南·申一汕·金禹植등문(사진 右)

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모교에 입학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먼저 생각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은 선택된 동량들임을 잊지 말고, 사회의 리더로서 우리 동문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나눔과 창조의 정신으로 새로운 변혁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교 법인화와 관련해서는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대학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기쁘고 뜻깊은 일이었다”며 “이로써 모교는 대학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정확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세계 초일류 명문대학을 향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신년사에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력 있는 인재 양성과 창의적인 지식 창출이 필요하다”며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모교의 사회적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모교는 시대적 사명을 묵묵히 의연하게 수행해나가며,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학문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공 동문 19명에 공로패 수여

또 “지금 모교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대학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자율과 책임을 요체로 하는 새로운 대학운영체제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순탄치 않은 자기 혁신의 과정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하므로 동문들의 정신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본회 權彝赫·鄭元植고문, 金在淳 명예회장,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李吉女·洪性大 부회장, 모교 李賢宰·朴奉植·鮮于仲皓·李基俊 前총장, 吳然天총장, 李相禹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金仁圭 KBS사장, 安相洙 前인천광역시장 등이 새해에는 동문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모교와 동창회가 더욱 발전하길 기원하며 참석자들을 대표해 시루떡 나눔 행사를 가졌다.

2부 순서에는 모교 성악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중창단이 축하로 ‘Happy days here again’, ‘강 건너 봄이 오듯’, ‘그대 있는 곳까지’, ‘상록수’ 등을 불러 동

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타향살이’, ‘반대편 신사’ 등으로 구성된 흘러간 우리 노래 메들리는 참석자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할 만큼 흥겨워 많은 동문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에 참석했다는 한 동문은 “졸업한 지 벌써 30여 년이 지났는데 동창회 행사에 올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며 “법인 전환을 앞두고 올해는 모교가 백년대계를 쌓는데 중요한 해인 만큼 충실히 준비해 세계 일류대학으로 거듭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金在淳명예회장은 건배사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는 우리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울대인으로서 모교와 동창회의 영광스런 앞날을 기약하는 자리이자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에 글로벌한 안목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대다운 긍지와 책임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한 뒤 “모교와 조국 앞에 무한 책임이 있음을 다짐하면서 33만 동문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 신년 축하를 올린다”며 “위해서”를 힘차게 외쳤다.

유공 동문 시상식에서는



權彝赫고문



鄭元植고문



李吉女부회장



신년교례회 행사장을 가득 메운 1천여 명의 동문들이 국민의례를 하며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법인화는 모교 도약의 계기, 동문 지원 절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입구에 설치된 2011년도 신년교례회 플래카드



모교 남성창단이 '타향살이', '빈대떡 신사' 등 흘러간 우리 노래를 메들리로 열창했다.



李基俊 前총장



洪性大 부회장



李炯均 부회장

모교가 세계 중심으로 비상하길 기원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재단법인 관악회 明泰鉉 前이사과 단과대학(원) 및 지방지부동창회 직전 회장인 許鎭奎(공대)·韓仁圭(농대)·金正國(법대)·李世榮(약대)·河斗鳳(대학원)·金英大(경대원)·姜吉夫(환대원)·金聖吉(전북지부)·黃在文(안동지부)·李鍾漢(포항지부)·鄭喜鎔(AIP)·李廷益(ACAD)·李承漢(SGS)·申一汕(AMPFRI)·洪起南(SPARC)·金禹植·尹東漢(AFP)·吳星煥(ASP) 동문 등 19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만찬 중에는 모교 李基俊 前총장, 본회 權彝赫·鄭元植 고문, 李吉女·洪性大·李炯均 부회장이 새해 덕담을 했다.

權彝赫 고문은 올해의 화두를 청춘이 길이 보전되길 바란다는 뜻의 '청춘만세'로 정했다며 "청춘은 인생의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 상태를 의미하는데, 늙었다고 해서 청춘의 꿈을 갖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마음만은 청춘으로 살자"고 말했다.

李基俊 前총장은 "새벽은 새벽

에 눈을 뜬 사람만이 볼 수 있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이라며 "吳然天 총장님이 취임하면서 우수한 입학생보다는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내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 모교를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책임지는 훌륭한 대학으로 성장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鄭元植 고문은 "요즘 우리 사회에는 신중하지 못한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운을 뗀 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입에서 한 번 나온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동문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말로 인해 화를 당하는 일 없이 고운 말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동문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했다.

李吉女 부회장은 "우리 동문들과 모교 교수님들 중에 훌륭한 업적을 가진 분이 많은데 지금까지 모교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게 이상하다"며 "올해에는 꼭 우리 동문 중에

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洪性大 부회장은 "모교는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 종합대학교로 개교했지만 그 역사적 뿌리를 찾아가면 1895년에 이른다"며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의 성과를 설명하고 "그동안 경상대학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해방 이전의 역사를 꺼려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과감히 떨치고 모교의 역사와 뿌리를 찾는데 공헌한 모교 평의원회 朴彬沃 의장과 吳然天 총장님, 林光洙 회장님께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李炯均 부회장은 "우리가 신세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나라를 운영해나가기 어렵다"며 신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농담 몇 가지를 소개한 뒤 "신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들이 쓰고 있는 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수권세트를 기념품으로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본회 고문인 동아제약 姜信浩(의학46-52) 회장이 사이다 '나랑드'를, 대강합동양조장 趙在九(산림자원83-90) 대표가 '햄쌀누보' 막걸리를 협찬했다. (智)

관악언론인회 2011년 정기총회

2월 23일 (수)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

서울대 언론인 출신 모임인 관악언론인회가 제9회 정기총회 및 제8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동문 언론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1년 2월 23일(수) 오후 7시
- ◆장 소 :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내 용 : ① 의안 상정 및 의결·경과보고
② 제8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

관악언론인회 회장 文 昌 克

느리나무광장

‘기부’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빌 게이츠이다. 액수뿐 아니라 기부에 대한 자세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대목이 있다.

게이츠는 미국적 부의 돌출이 아니라 사회에 또아리 튼 일반인식의 산물이란 점이다. 미국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는 반드시 장학금 수여가 길게 들어간다. 돈을 맡긴 인물들은 평범하다. 은퇴한 교사나 교수, 학부모, 지역 중소기업인 또는 학교와 인연을 맺거나 우연히 찾아든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다. 액수는 관계없다. 이를테면 은퇴한 영어 선생님이나 교수가 최우수 영어성적을 거둔 졸업생에게 2~3백 달러를 주는 식이면 족하다.

공공텔레비전(PBS)과 공공라디오(NPR)의 프로그램을 보면 수많은 재단, 개인, 회사가 제작을 도왔노라고 공개한다. 또 1년에 몇 차례 모금기간을 정해 지루할 정도로 돈을 내달라고 방송한다. 우리나라 공공방송이 간접광고를 하느니, 앵벌이짓을 하느니 하면서 원천적으로 불허하거나 욕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부가 없다면 아무리 미국

이라고 하더라도 공공방송의 존립과 좋은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없고 민영방송의 부족분을 메우기 힘들다. 특히 이런 프로그램들은 학교교재로 쓰일 정도로 우수하고 다양하다. 지난 2003년 NPR은 뜻밖의 기부 2천6백억원으로 환호했다. 당분간 제작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액수였다. 기부자는 햄버거로 돈을 번 맥도날드의 미망인으로 평생 조석으로 들어온 좋은 뉴스와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보답으로 유산을 기부했다. 물론 조건은 없었지만 굳이 따진다면 지금처럼 방송해 달라는 것이다.

기부하면 생각나는 인물 ‘빌 게이츠’

辛京珉

MBC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주로 민주당에 정책과 인재를 제공하는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기업인들의 기부금으로 시작했다. 세일즈로 치부한 로버트 S. 브루킹스는 연구소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하면서 정부에 대한 연구가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장래의 정부 직원을 기르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브루킹스는 이 전통에 따라 역대 민주당 정권에 우수인력을 공급하고 공화당 정권이 탄생하면 이들에게 피난처를 주면서 4년 뒤를 준비하는 역할을 해왔다. 여기서 읽을 대목이 있다. 기부는 누구나 조금씩 참여하는 나눔이다. 또 기부는 가난구휼과 장학뿐 아니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공행위이다. 곧 민주주의의 성숙에 필요한 수준급 언론과 연구소 등을 배양하는 젖줄이다.

언론의 위기를 말하는 요즘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인식의 전환이 여기 해당한다. 민주주의가 형식적 삼권분립과 선거, 적극적 투표만으로 성숙할 수 없다는 점이 여러 번에 걸친 정권교체를 통해 자명해졌다. 꽤 많은 다른 조건, 특히 돈과 노력이 드는 조건의 리스트가 있다.

이제는 평범한 시민은 물론 돈 가진 사람들이 공적 인식을 넓히고 지갑을 고쳐 잡아 이런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민주주의와 미래에는 돈과 노력, 그리고 공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관악시단

눈맞추기 놀이

朴鍾大(국어교육51-56)
시조시인

나를 봐
꼭 그대로
지금의
그 눈 그대로
또 외면
뭐가 켜기니?
아니지
다시 봐 봐
이렇게
서로 찬찬히 보고 있으면
착해진대 우리 눈이

눈이 없는 것이 없대
나무에도 벌에도 다
저 돌맹이 저 눈 좀 봐
저도 보고 우리도 보고
이렇게 서로 곰곰이 보고 있으면 착해진대 우리 눈이

참해지고 착해지면 눈도 띄고 귀도 띄고
핀 눈 귀 한데 모으면 일어날 수 있대 우리
자 그림 째작만 해도 안 돼
눈맞추기, 시이작!

동문칼럼

과학에 대한 인간의 탐구는 지속돼 21세기에 들어 학제적으로 수평적 통합의 바람이 불고 있다. 융합적 통섭(confluent consilience)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적으로는 첨단기술 컨버전스가 대세가 됐다. 또한 정부는 융·복합시대에 맞추어 경쟁적으로 융합창발형 조직을 구축·운영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로봇이다. 실제 로봇은 전자, 기계, S/W, 나노, 바이오 등 여러 공학 기술이 조합돼야 탄생할 수 있고 뇌과학, 분자생물학 등 자연과학과의 융합이 더해져야 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 이 로봇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문학도 연계돼야 한다. 한국로봇학회 회원으로 법률, 의료, 문학, 교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21세기 들어 소득수준의 향상, ‘well-being’ 라이프 추구, 출산율 감소, 고령화 등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이에 따라 제반 산업의 틀도 변화하고 있

우리가 적용해야 할 핵심기술의 적지 않은 특허도 미국 및 일본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오랜 기간 제조용 로봇 1위인 일본은 그 시선을 서비스로봇으로 옮겨둔 상태이며, 미국 또한 NASA, 국방부 등을 통해 축적된 우주, 군사분야 첨단기술을 민간 협력을 통해 이전하고 있다. 유럽은 EU차원에서 로봇분야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우리 정부와 로봇인들이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었다. 비록 IMF로 인한 투자가 주춤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2003년 이후 로봇분야 르네상스라 할 정도로 R&D, 비R&D 분야의 정책적



吳尙錄

(전자공학76-80)

한국로봇학회장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연구개발과 급격한 산업성장이 이뤄져 왔다. 우리가 선진국과 원천기술의 격차는 있으나 다양한 응용경험과 시스템 기술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무엇보다도 첨단기기의 수용력이 탁월해 이미 로봇의 상용화를 뛰어 넘어 R-learning 같은 Servitization을 교육현장이라는 수요처에 적용하고 있다. 로봇과 연계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잘 할 수는 없다. 우리 우리만의 장점이 활성화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된다. 결국 첨단기술분야는 지키는 것보다 누가 먼저 시도하고 선점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로봇, 과학과 인문학 융합의 정점

다. 이미 선진국은 이러한 메가트렌드에 대해 Multi Value Chain산업이 될 로봇을 활용해 대응을 시작하고 있고, PC혁명을 이끈 빌 게이츠가 로봇의 급격한 성장을 예견했듯이 많은 미래학자 또한 머지않은 미래에 로봇이 전문화적인 경제규모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그 흐름을 타지 못하거나 탈 수 없다면 우리에게 SF영화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과 다름없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에 비해 요소기술 분야별 원천기술이 3~5년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이미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은 로봇이 있다. 걷고 뛰는 ‘아시모’, ‘마루’ 외에도 인공지능과 센서가 탑재된 에어컨로봇, 청소로봇이 필수 혼수품으로 선택돼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골퍼들이 애용하는 스크린골프의 프로그램과 기기들에 로봇기술이 적용돼 있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미국은 2020년에 로봇군단을 창설하겠다고 했다. 卜鉅一의 소설 ‘애뜻함의 로마’에서 한 노신사가 아내와 사별한 뒤 집안 일을 맡은 가정부로봇에 정이 들어 ‘생명연장기술’을 받을지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光洙
편집인 孫一根
인쇄인 朴薦壽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邊榮顯, 玄智愛 광고부장 金千鶴

희망을 설계하고 ...소통·화합을 다지고 ... 신년회의 계절

법대동창회

개교 원년 기념조형물 건립 제안

법과대학동창회(회장 金慶漢)는 지난 1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3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동창회는 이날 신년인사회 플래카드에 ‘開學 1895년 開校 1946년’을 표기해 본회에서 추진한 개교 원년 찾기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법대 동문들에게도 널리 알렸다.

金慶漢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총동창회 林光洙회장님께서 각

교의 노력으로 모교의 역사를 담은 일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며 이를 기념하는 조형물을 모교에 세울 것을 제안했다. 또 “올해는 법대 학부과정이 문을 닫고 내년에 첫 로스쿨 졸업생을 회원으로 맞이하게 된다”며 “이 과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교와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개교 원년 찾기 사업과 장학발당의 성공적 마무리를 모태알 같다



李載厚·李相赫·李大淳·金滉植·林光洙·金慶漢·金春鳳·琴震鎬·成樂寅·孫一根·崔鍾庫동문

던 서울대인들이 합심해서 이론 성과”라며 “총동창회는 앞으로도 모교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창조적이고 위대한 비상의 날개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교 법대 鄭宗變학장은 “올해 법학강의동 신축과 아시아법연구소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행사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한 金滉植국무총리는 “모교에서 배운 대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힘을 쏟겠다”며 동문들의 격려를 부탁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등 여러 동문들이 2천5백만원의 현금과 LCD TV, 디지털카메라 등 60여 점의 물품을 협찬했다.

상대동창회

成耆鶴회장 선출·빛내자상 시상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洪龍濤)는 지난 1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3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난 11월 회장단회의에서 선임 회장으로 선임된 영원무역 成耆鶴(무역66-70)회장을 인준했으며, 지난해 모교를 빛내고 동창회 발전에 헌신한 동문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교 趙淳明예교수와 李賢宰 前총장은 덕담을 통해 지난 5년간 동창회를 위해 헌신한 洪龍濤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洪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창회장직을 떠나더라도 선임 회장들께서 임기 후에도 동창회를 위해 보살펴주신 것을 본받아 열심히 새 회장을 도와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정 어린 애정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成耆鶴회장은 “洪龍濤선배님의 부름을 받아 동문들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막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동창회 모토인 ‘묻지자, 돕자, 빛내자’에 걸맞게 상대동창회가 제일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자랑스러운 동문상인 ‘빛내자상’은 한국알콜산업 池昌壽(상학55-59)회장, 한국무역협회 司空壹(상학58-64)회장, KT 李錫采(경영64-68)회장이 수상했다. 장학금을 출연한 동문에게 수여하는 ‘돕자상’은 金正銀(경제52-56)·李鍾衍(경제52-56)·沈晶求(경제53-57)동문 등 34명이 받았다.

한편 이날 李賢宰동문과 李錫采동문은 경영학과와 경제학과의 통합을 주문하기도 했다. 李賢宰동문은 “관악캠퍼스로 오면서 경제



成耆鶴(左)·洪龍濤동문

학과와 경영학과가 분리됐지만 졸업 후에는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대동창회로 두 학과 졸업생들이 뭉칠 수도 있겠지만 학부차원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신임 회장께서 힘써 줄 것”을 부탁했다.

李錫采동문도 “상대시절 경제·경영을 통합해서 배운 지식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금도 그런 것이 필요하고 언젠가 다시 통합돼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가는 전통이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창회에 이런 일이...

2·3 월 행사 캘린더

2월 18일(금) 오후 6시30분

• 인문대동창회 임시총회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문의: 803-2262)

2월 28일(월) 정오

• 상대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문의: 761-2278)

2월 18일(금) 오후 7시

• 약대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태평로2가 프라자호텔
(문의: 701-3456)

2월 28일(월) 오후 7시

• AIC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양재동 엘타워
(문의: 6678-6009)

2월 21일(월) 정오

• 전북지부 신입생 환영회

전북 전주시 백리향
(문의: 063-250-2018)

3월 3일(목) 오전 11시

• 농생대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대 교수회의실
(문의: 882-8630)

2월 23일(수) 오후 7시

• 치대동창회 정기총회

모교 연건캠퍼스 치과대학
(문의: 742-7082)

3월 11일(금) 오후 6시30분

• 동승클럽 정기총회

서울 삼성동 현직빌딩 6층
(문의: 총무 011-412-0757)

2월 24일(목) 오후 6시

• SPARC동창회 정기총회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문의: 880-4353)

3월 14일(월) 오후 6시

• 사대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
(문의: 6399-6500)

2월 25일(금) 오전 11시

• 공대동창회 최우수졸업생 시상식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문의: 880-7030)

3월 14일(월) 오후 6시

• 음대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태평로1가 뉴서울호텔
(문의: 876-1440)



대구·경북지부동창회

골프·등산 등 동호회 조직 강화

대구·경북지부동창회(회장 崔敬鎭)는 지난 1월 20일 대구시 노보텔 버건디홀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崔敬鎭회장을 비

롯해 朴鍾根(상학56-61)국회의원, 진양공업 李澤雨(금속공학64-69)사장, 경북대 盧東一(정치68-72) 前총장, 金洙學(법학73-77)대구지방법원장, 대구대 洪德

律(사회76-80)총장, 삼익THK 陳榮煥(AIP 9기)대표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히 이날 모임에서는 2000년대 학번인 젊은 동문들이 많이 참석해 선배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崔敬鎭회장은 인사말에서 “동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모교와 동창회, 더 나아가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창회는 올해 동창회 명부를 새로 발간하고 각 단과대학별 동창회와 석·박사과정 및 특별과정 동문들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걷기대회를 비롯해 골프, 등산모임 등 취미활동 조직을 강화할 계획이다. (南)



朴貞浩·兪淑子·李仁淑·洪京子·宋美順·洪麗信·李笑雨·金花中등문

간호대동창회

희망찬 덕담 나누며 새출발 다짐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洪京子)는 지난 1월 10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강당에서 학장 이·취임식 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洪京子회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모교 宋美順前학장과 李仁淑학장의 이·취임을 축하했다.

洪京子회장은 “간호대 국제평가, 동문과 재학생을 잇는 멘토링 사업 실시, 모교 환경개선 사업, 교육공간 확보 등 큰 성과를 이루고 물러나는 宋학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신임 李학장은 모교 뒤에 항상 동창회가 든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알고 당당하고 우아하게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신년사에서 洪회장은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사자성어로 중국 제나라 때 명제상 管仲의 저서 管子에 나오는 ‘禮義廉恥’를 골라봤다”며 “특히 염치,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니고

사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덕담시간에는 모교 법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金花中(간호63-67)前보건복지부 장관은 “모교가 법인화된다는 소식에 우리처럼 작은 단과대학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간호서비스 산업을 키우는데 힘을 합쳐나가자”고 강조했다. 모교 洪麗信명예교수도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7·58학번 동기과 鄭潤煥회장(다섯 번째), 韓仁圭명예회장(여섯 번째)

농생대동창회

신년회서 장학금 지원 확대키로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鄭潤煥)는 지난 1월 11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2011년 제1회 임원회의 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57·58학번 동기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韓仁圭명예회장, 鄭潤煥회장을 비롯해 재학생 20명 등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鄭潤煥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동창회 사무실을 관악캠퍼스로 이전해 모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됐

다”고 언급한 뒤 “모교를 돕기 위해 지난해 대형 셔틀버스를 기부했는데, 올해는 상록문화재단 지원을 통해 후배 재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록문화재단 韓仁圭이사장은 “지난해 재단을 통해 60명에게 8천6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교 朴憲雨학장 대신에 참석한 金基善교무부학장은 모교 현황 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농생대 교수

동문 작품 지상전시회



‘2010 Work’, 한지공예, 88×64cm, 2010

趙允作

〈작가약력〉

- ▲59~63년 모교 조소과 졸업
- ▲동아공예대전 대상
- ▲동아공예대전·청주공예비엔날레 심사위원
- ▲한울회 회원
- ▲공예가

사학과동창회

정기총회서 安國正회장 선출

동양사·서양사·국사학과 연합동창회인 사학과동창회(회장 李濟薰)는 지난 1월 6일 서울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동아일보 방송설립추진위원회 安國正(사학63-70 본보 논설위원)위원장(사진)을 선출했다.

신임 安國正회장은 “오랫동안 방송 PD로 살아왔는데 PD 출신들은 누구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다르지 않지만 전임 회장님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 맡게 됐다”며 “바쁘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하겠다”

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임기를 마친 李濟薰회장은 “지난 4년간 ‘사학인 포럼’을 정례화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부족한 면이 많았다”며 “특히 모교의 3개 사학과를 통합 승격시키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또 李회장은 동창회 기금으로 2천만원을 기부한 메가스터디 孫主憲회장과 동창회 간사로 굿은 일을 도맡아 해온 金永範간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신년회를 겸한 이날 한국유비쿼터스농촌포럼 申允植(사학55-59)



공동대표, 국사편찬위원회 李泰鎭(사학61-65)위원장, 서양사학과 동창회 河沅(사학68-72)회장, 동양사학과동창회 徐玉植(동양사학69-73)회장, 나누회(사학과여동문회) 金顯玉(사학68-72)회장 등이 덕담을 들려줬다.

이날 행사를 위해 인문대동창회 朴孟浩(불문52-57)회장이 도서 1백여 권을 협찬했다.

가 1백39명이 돼 서울대 메이저 단과대학으로 올라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 “평창에 2천4백억원의 자원이 투입돼 건설 중인 바이오 단지는 현재 50%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생대뿐 아니라 모교 의대, 간호대, 생활대, 약대 등이 밀집하게 연결돼 제3의 캠퍼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許文道 前국토통일원 장관은 “동창회 모임을 호텔에서 가진 것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도 보기 드문 일”이라며 鄭회장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대전·충남지부동창회

吳應準회장 재선임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1월 17일 대전시 유성관광호텔 김흥에서 각계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정기이사회 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부 발전에 기여한 동문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吳應準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

吳應準회장은 인사말에서 “모교의 법인화 출범을 계기로 모교에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갖자”고 말했으며 경과보고와 2010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 승인 및 2011년도 사업계획의 심의를 논의했다.

이어진 음악회에서는 曹堉(물리교육68졸 한남대 교수)·康樂榮(성악67-72 목원대 교수)·崔秉煥(사회교육70-74 대전대 교수)등 동문이 가곡과 흘러간 옛 노래를 열창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수원지부동창회

廉泰英시장 당선 축하

수원지부동창회(회장 兪東濟)는 지난 1월 21일 수원시 이비스 엠버서더호텔 칸느홀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7월 수원시장에 당선된 廉泰英(농화학80-84)수석부회장을 축하하고 그동안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廉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불교학생회동문회

李禧世회장 추대

불교학생회동문회(회장 朴洪佑)는 지난 12월 27일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회관 선우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서울 신목교 李禧世(국어교육76-82)교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제2회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자에 참여불교재가연대 金東建(법학65-69)대표와 국민대 金文煥(법학65-69) 前총장을 선정해 시상했다. 동문회는 매년 4명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월 독서 모임, 가을 사찰순례 등의 행사를 갖고 있다. (南)



기계동문회

기계공학 후진양성에 힘써야

기계동문회(회장 李賢淳)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기계동문회 崔昇喆·李俸柱·金東晉 前회장, 李賢淳 회장을 비롯해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친목을 도모했다.

현대·기아자동차 부회장인 李賢淳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다녀온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만난 미국 자동차회사 CEO들과의 대화를 소

개하며 “미국도 기계 전공 엔지니어를 찾기가 어려워 자동차 연구원의 인력을 멕시코나 남미 사람들로 보충하고 있고, 우리 연구소도 매년 6백여 명의 기계 전공 연구원을 뽑는데 항상 절반을 못 채우고 있다”며 기계공학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 “미국이 몰락해 가는 원인도 기계산업 등 제조업을 중국에 빼앗긴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동문회 차원에서라도 후진양성에 더욱 힘써야 할 것 같

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총동창회에서 추진했던 장학빌딩 건립과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보고하며 “앞으로도 모교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창조적이고 원대한 비상의 날개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문회는 지난 12월 한국공학한림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1백대 기술과 주역’에서 기계공학과 동문 기술이 15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계분야의 金炯璧(기계공학54-61)·崔相弘(기계공학54-58)·李景瑞(기계공학57입)·金仁勤(기계공학59-65)·韓圭煥(기계공학68-72)·李賢淳(기계공학69-73)·李在允(기계설계74-78)·鄭京烈(기계공학77-81)·金勝一(기계공학82졸)·金斗勳(기계설계78-82)·朴喜載(기계설계79-83)·孔羲錫(기계설계80-84)·安祐正(기계설계91-95)·李日煥(기계공학91-95)동문, 전기전자정보 분야의 高秉天(기계공학75졸)·梁雄哲(기계설계73-77)·李燦振(기계공학84-89)동문이 그 주역이다.

變회장은 “그동안 동문회가 너무 친목에만 치우쳤다”며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청소년에게 좋은 사회의식을 갖게 해줄 리더십 콘퍼런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金회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책임지는 이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을 찾게 하고 있다”며 “육식 같은 안보 불감증에 처한 상황에 대해 청소년들이 그릇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제대로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동문회는 청소년 리더십 콘퍼런스 외 올해 ‘사회봉사 장교단’을 창설해 50세 이상된 장교 출신 동문들과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lily9201’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중2 여학생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솔직히 부모님의 강요에 의한 자발적 참여는 아니었지만 평소 멀게만 느껴지던 역사·정치 등 시대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내 자신이 성큼 성장한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평소 접하기 힘든 서울대 교수님과 재학생 만나, 오빠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돼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를 주최한 金鍾

ROTC동문회

청소년 리더십 교육에 앞장

ROTC동문회(회장 金鍾燮)는 지난 1월 6~26일 모교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동에서 ‘청소년 리더십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난 여름방학 이후 두 번째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1백20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해 모교 학부생 멘토 40명, 전문가, 지도교수, 연구원 20명과 함께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콘퍼런스에 참여한 학생들의

AIC동창회

행대원 발전 플랜 경칭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世漢)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李世漢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는 2월에 30기가 수료하면 동창회는 1천1백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정보통신분야의 거대 단체가 된다”며 “올 한해는 이에 걸맞은 품격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교 행정대학원 金秉燮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신건물 준공에 이어 구건물 리모델링이 모두 끝나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구축됐



鄭長煥·朴鍾烈·趙珉來·柳振國·李世漢·金秉燮·文憲一·李敬俊동문

다”며 “그 공간을 연구소로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전반에 걸쳐 너무 큰 변화가 있어 효율적인 나라 살림이 어렵다”며 “우리 대학에서 교육·국방·복지·환경·재난 등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중립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해 싱크 탱크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金원장은 50여 개 국가에서 인재를 선발해 운영하는 글로벌 석사과정 설립계획을 설명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되는 인재들이 현지에 가면 그 나라를 책임지는 엘리트로 성장하게 된다”며 “그들이 모교에서 공부할 때 동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南)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MPFRI동창회 文允奉회장
(참이맛 회장)



최근 식품 및 외식산업 보건 최고경영자과정(AMPFRI)동창회 신임 회장으로 참이맛 文允奉(15기)회장이 선출됐다.

AMPFRI는 보건대학원에서 1996년 개설한 과정으로 ‘농부’, ‘옛골토성’ 등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프랜차이즈 식당 경영자들이 본 과정을 수료했다. 동창회는 1997년에 창립돼 현재 27기까지 9백여 명의 동문이 매년 정기총회, 체육대회, 해외연수, 송년회, 세미나, 등산모임 등을 통해 교류를 갖고 있다. 지난 1월 11일 權純(4기)동문이 운영

—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을 이끈다’는 책을 내셨던데.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없을 정도로 힘든 시절이 있었죠. 사업을 하면서 망한 적도 여러 번 있고 그 와중에 허리를 다치기도 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며 지금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적은 책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 중에 나약한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도전 정신의 중요성을

“맛기행 사업 전국적으로 확대”

하는 서울 인사동 ‘양반택’에서 文회장을 만나 운영 계획을 들어봤다.

— 집행부 구성은 마쳤나요.

“사무총장에는 지난 12, 13대 사무차장을 역임한 대세관광 최인호(16기)대표를 선임했고 저와 같은 기수의 朴春善(15기)동문이 수석부회장, 김재희(15기)동문이 여성회장으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 새롭게 추진할 사업은.

“전임 회장들께서 기틀을 확실히 잡아주셔서 제가 새롭게 해야 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 거주 회원들의 원활한 참여를 이끌기 위해 맛기행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회원 다양화와 과정 홍보를 위해 식품외식 종사자의 타 분야의 경영자들을 유치하는 데도 힘을 쓸 생각입니다.”

알리고 싶어 쓴 책입니다.”

— 마지막으로 총동창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총동창회에서 서울대병원에 건의를 해서 동문들을 위한 의료혜택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강검진 10% 할인 혜택은 그리와 닿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1952년 인천 태생인 文회장은 1990년대 초 감자탕 식당을 열고 2001년 ‘참이맛’이란 브랜드로 감자탕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전국에 85개 매장이 있으며 중국에 10개, 일본에도 2개의 매장이 있다. 본사 직원은 40명 정도 된다. 2002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해 매년 30여 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부인과 사이에 1남2녀를 두었다. (南)

만평

李元馥



이번에는 요미끼로 '재미' 좀 볼까?

화제의 동문

영화 ‘의형제’의 장 훈 감독

두 편의 작품으로 각종 영화상 휩쓸어

2010년 상반기 최고 흥행작인 영화 ‘의형제’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31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 ‘의형제’의 연출을 맡았던 장 훈(본명 張亨碩 디자인99-03)동문은 감독상을 받았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자신에게만 주는 상이 아니라 함께 고생한 스태프 모두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2008년 개봉한 그의 첫 영화 ‘영화는 영화다’로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감독상을 받은 지 불과 2년 만의 일이다. 감독 데뷔 이후 단 두 편의 영화로 충무로를 단숨에 사로잡은 그를 지난달 18일 일산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충무로서 가장 주목받는 신예

모교 졸업 후 취직을 하라는 부모님 몰래 ‘생고생의 결정판’이라는 영화계에 무작정 뛰어들어 張동문은 온갖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연출부 막내로 일을 시작했다. 이유는 단 하나. 영화가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제목만 들어도 영화의 내용을 줄줄 꿰는 영화 마니아도 아니었고, 학창시절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해본 적도 없지만 사람에게 대해, 세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영화가 정말 하고 싶었다고.

“대학생 때 삶에 대해 쓸데없이 생각해 보곤 했는데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취직을 하고, 회사에 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았어요. 답을 찾든지, 못 찾든지 간에 영화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좋았어요.”

영화감독이 되기로 결심한 張동문은 평소 알고 지내던 金基德감독을 찾아갔다. 모교 재학시절 미대학생회에서 축제를 준비하던 張동문이 명사 초청 강연의 대상자로 金감독을 섭외하며 알게 됐는데, 그 이

후에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다가 고민 끝에 연락을 취한 것이다. 金감독은 “네가 지금 하고 싶다고 해도 진짜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 직접 해보고 나서 결정해라”는 말로 그를 받아들였고, 그의 영화 인생은 그렇게 시작됐다.

金감독 밑에서 영화 ‘빈집’과 ‘사마리아’의 연출부 생활을 하고, ‘시간’과 ‘활’의 조감독을 맡으면서 그는 점점 영화에 빠져들었다. “영화 일은 경쟁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 내가 잘 하나 못하나의 문제죠. 스태프로 일을 하면서 그런 걸 처음 느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하나의 목표를, 꿈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영화 한 편이 끝날 때마다 감독님이 저한테 ‘할 만하냐?’고 물으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계속하고 싶어요’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영화계에 뛰어든 지 5년 만에 그는 자신의 첫 영화를 극장가에 개봉했다. 총 제작비 6억5천만원의 저예산 영화였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만들었던 ‘영화는 영화다’는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상영 당시 화제가 됐다. 이 영화로 그는 제28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감독상과 제16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영화부문 작품상을 받았다.

“한국영화계에서 첫 영화가 잘 안 되면 다음 영화를 못 찍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회가 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감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거라 생각하고 찍었어요.”

한 편의 영화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그는 두 번째 영화로 사람들의 뇌리에 자신을 각인시켰다. 2010년 상반기 한국영화 최고 흥행작인 ‘의형제’를 통해서다. 전국적으로 5백46만의 관객을 동원한 ‘의형제’는



무엇보다 張동문만의 색깔이 확연히 드러난 영화로, 남한 국정원 요원과 북한 간첩의 기묘한 동거를 긴장감 있으면서도 인간미 있게 담아냈다. 이 영화로 그는 제31회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 제30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감독상, 제46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감독상을 받았고, 지금은 충무로에서 가장 주목받는 감독이 됐다.

차기작 ‘高地戰’을 여름 개봉

평소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라 촬영 현장에서 조용한 감독이라는 그는 액션영화 감독이면서도 스토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예쁜 화면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물의 감정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제 배우가 갖고 있는 면면들 중에서 영화 속 캐릭터와 맞는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영화 작업은 뱃속의 아기를 키우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애가 나올까, 좋은 아이가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며 온갖 정성을 들이죠. 아이가 원하는 것에 귀기울이고 집중하다보면 애한테 맞는 걸 주게 되듯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제 자신의 세 번째 영화인 ‘高地戰’을 찍고 있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1백억원대의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로, 올 여름에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원작자이자 MBC 드라마 ‘선덕여왕’의 공동 집필자인 박상연 작가와 張동문의 결합만으로도 세간의 집중을 받았다. 영화배우 신하균, 고수, 김옥빈 등이 출연하며,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동안 국경을 조

금이라도 넓히고자 치열하게 싸웠던 남북한 병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張동문은 이번 작품에서 “군인이지만 실제로는 군인이 아니었던 이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자동차를 좋아해 영화감독을 안 했으면 아마도 자동차 디자이너가 됐을 거라는 그는 언제까지 영화감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계속하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흥행 성적에 따라 감독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재의 영화시장을 고려한 그의 말에 웬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다.

할리우드에 진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물으니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그가 답한다. “지금 저한테는 어디서 뭘 하느냐보다 어디에 있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의 목표는 ‘사람들한테 해가 되지 않고, 같이 보고 있으면 즐거우면서도 약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영화를 찍는 것이다. 영화도 투자산업이기에 관객수로 표시되는 숫자들을 전혀 무시할 수 없지만, 그건 목표가 될 수 없기에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스크린 안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화려한 액션 안에서도 사람냄새 풀풀나는 이야기를 담고자 노력하는 그를 보니 이번 여름, 또 어떤 대작이 탄생할지 사뭇 궁금해진다.

(智)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균형 이뤄야

동문을 찾아서

朴明珍 모교 교육부총장



대답 : 金永燮(연합뉴스 미디어과학부 차장)논설위원

모교 朴明珍(불문65-69)교육부총장은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朴부총장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2000년대 초반 그가 KBS에서 진행을 맡았던 ‘TV, 책을 말하다’를 이야기한다.朴부총장의 분위기와 제대로 호흡이 맞은 프로그램이었다. 방송 이후朴부총장은 한국언론학회, 모교 중앙도서관장, 초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굵직굵직한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모교는 그에게 서울

대의 ‘교육’을 업그레이드시켜줄 것을 부탁했다.

프랑스 유학시절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 영화학교도 1년 다녔다는朴부총장은 동아방송 PD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만큼 격식에서도 자유로운 인상이다. 1월 28일 모교에서 만난朴부총장은 고3 시절 수학을 영점 맞은 이야기도 꺼내 보였다. 인터뷰는 약속했던 1시간을 훌쩍 지나 2시간 넘게 진행됐다.

－ 법인화 준비로 분주하시죠.

“201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올해 안으로 모든 세팅을 마무리해야 하니까 조금 벅찬 게 있죠. 시행령, 정관, 교직원 신분 및 처우 등 법인화로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우선 법인화 설립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어요. 현재 위원 구성을 하고 있고, 사무국과 그 아래 세분화된 팀을 조직해야죠.”

－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데요.

“그 분들도 모두 서울대와 대한민국 공교육의 발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할 부분도 많아요. 합리적인 주장들은 수용해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 모교 부총장이 두 분이신데, 교육부총장의 역할은 뭔가요.

“교육·학생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무처와 학생처를 비롯해 기초교육원, 국제협력본부, 입학관리본부, 교수학습개발센터, 대학생활문화원 등의 기관들을 총괄하고 각 기관과 단과대학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일을 하죠.”

－ 최근 KAIST에서 전문계고 출신 학생의 자살이 이슈가 됐는데요. 모교도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죠.

“지역균형선발전형, 농어촌, 새터민, 외국인, 동일계열 특별전형 등이 있죠.”

－ 그 학생들도 학업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기초학습 미비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는 게 사실이죠. 여러 가지 대책을 갖고 있어요. 학생들과 일

대일 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다양한 멘토링시스템이 있고, 부족한 기초과목을 선배들이 개별적으로 지도해주는 튜터링제도도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튜터링제도 는 하버드대가 유명하죠. 하버드대에 전제

“학생이 즐거워하는 학교 만들고 싶어” 멘토링시스템·튜터링제도 적극 활용

만 들어가는 줄 알지만, 1970년대 이후 공부 잘하는 명문 사립고교 출신들을 주로 선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립학교 출신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어요.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다보니 기초학문이 부족한 학생들이 생겨나 그 학생들에게 일종의 과외학습 같은 튜터링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이를 위해 아주 많은 재원을 쏟아 붓는다고 해요. 우리 학교는 튜터링제도를 실시한지 3년째인데 극히 적은 예산으로 실시 중이지만 성과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비슷한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 교육해도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에 세 종류의 학생들이 있어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 주어진 틀 속에 익숙해진 모범생들, 잠재력이 우수하나 기초학습이 떨어져 있는 학생들. 하나 덧붙이면 다른 교육시스템 속에서 키워진 외국인 학생들이 있겠죠. 이들에게 얼마나 적절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느냐가 우리의 숙제예요.

・朴부총장은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모교 졸업 후 프랑스 파리 제3대학 소르본느 누벨 대학원에서 영상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 모교 언론정보학과(舊신문학과)에 부임해 방송 정책과 영상 이론, 기호학과 담론분석, 비판커뮤

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발한 교육, 연구 활동을 펼쳤다. 유네스코 홍보분과위원, 관악언론인회 감사, 모교 언론정보연구소장, 한국언론학회, 모교 도서관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비판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이론, 비판적 커뮤니케이션연구의 성과와 그 쟁점 등이 있다.

탁월한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능력 개발이 가능한 특별프로그램, 미국 대학의 ‘Honors College’ 같은 제도를 도입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법인화로 좀 더 유연하게 교육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렇겠죠. 과거에는 학생 선발, 교수 채용, 재정 문제 등 모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도와 통제를 받았으니까요. 그런 방식은 나름대로 고등교육 발전의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사회가 다양화되고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유연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 부총장님이 희망하는 대학은 어떤 모습 인가요.

“거창한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대학이죠. 공부가 학점따서 졸업장 얻어 나가기 위해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임 중에 교수와 학생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밀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요즘 그렇지가 못해요. 교수님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교수 평가가 연구성과 중심으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합칠 것은 합치고 세분화될 것은 더 세분화돼야 한다고 봐요. 이제까지 서울대가 광역화 기조를 추구하고 유지해 왔는데, 지금은 살피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손볼 부분은 손봐야죠.”

－ 본부에서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광역화가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따라오지 않으면 BK 자금을 안 준대거나, 국가 프로젝트를 운영해 나가면서 조건으로 내건 거였죠. 할 수 없이 합칠 게 많아요. 합쳐서 잡된 분야도 있지만 부작용이 큰 분야도 있으니까 그걸 다시 재검토 봐야죠.”

－ 학부 정원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 공대 박사과정 미달사태도 학부생이 적어서 생긴 문제라고 들었어요.

“5천명에 달하던 학부생이 2004년 이후 이런 저런 계기로 줄어들어 지금은 3천1백명 수준입니다. 얼마전 거점 국립대학 총장 회의를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학부정원이 10개 거점 국립대학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예요. 제주대가 2천6백명, 나머지는 모두 4~5천명이 넘습니다. 경북대는 8천명 수준이더군요.

공대의 경우 학부정원이 평균보다 더 많이 줄어 대학원 학생 수와 비슷해요. 학부를 졸업하고 모두 대학원에 가지 않는 한 맞추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더욱이 KAIST 같은 경우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반면, 서울대 공대 대학원에 진학하면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되요. 그런데다가 우수한 타대 학생들은 출신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후에 자신의 모교에 교수직을 갖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서울대에 올 필요를 못 느낄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학부 학생 정원을 줄이다보니 교수 대 학생비율은 높아졌어요. 서울대 교원비율이 120%여서 받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과학기술부나 타대학 관계자들은 전후 사정을 모르고 현재 상황만 보고 서울대가 특혜를 받아서 교수가 많다고 그래요.”

－ 부총장님은 학생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당연하죠. 소수정에 교육도 좋지만 서울대의 학문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한 학문분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대수가 있는데 현재의 정원으로는 확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7년 전에 반납한 정원 8백명 만이라도 돌려 받았으면 좋겠어요.”

－ 모교 언론대학원(舊신문대학원) 

로 가다 보니 교육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생들이 불행해요. 더군다나 광역화 모집단위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소속감이 없어요. 2학년 때 전공 진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1학년 때가 소속감이 생기는 시기잖아요. 학생들이 고아처럼, 외톨이처럼 학교시스템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유리된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상담제도도 강화하고, 교수님들이 학생지도에 더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연구만 강조하다가 대학이 너무 황폐해졌어요. 이걸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대학이 존재하는 건지... 정부도 연구 성과를 놓고 너무 답답했어요. 연구를 무시할 수 없지만 교육과 연구가 균형을 이뤄야죠. 연구를 중시하다보니 대학원 육성에는 정부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학부교육이 위축돼 버렸습니다.”

－ 광역화(학부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 몇몇 학교들은 동창회를 중심으로 통합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맞은 학생증원 필요”

☑ 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인 재교육을 위한 특수대학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세대, 고려대 등 사립대학에서는 규모도 크고 아주 활발하죠. 덕분에 그런 학교들의 언론계 영향력이 아주 커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서도 그런 논의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수 수가 적기 때문에 대학원을 만들 여력이 없었죠. 또 국립대 특성상 짜인 틀 속에서 벗어나기가 무척 힘들었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언론전문대학원을 만들려면 학부 과정은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 같은 것이 있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디지털환경에서 미디어산업이 다각화되고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훈련받은 수많은 언론인들은 예전과 다른 차원의 재교육이 절실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립대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특수대학원이 필요하죠.”

— 모교만의 특징을 살린다면 어떤 형태의 대학원일까요.

“예컨대 신문, 방송을 위해서만 생산해 오던 언론정보를 디지털 상황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창의적인 능력, 그 과정에 요구되는 언론 철학과 윤리를 키우는 대학원이 되겠죠. 사실 지금도 미약하나마 학부의 정보·문화 연합 과정이나 융합대학원에서 그런 인재를 키우고는 있어요. 물론 그 과정들은 언론인 재교육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만 합쳐놓으면 시너지효과가 훨씬 크겠죠.”

— 언론학자로서 종합편성 채널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될지, 종편 채널에 선정된 신문사들도 모를 걸요? 그 회사들이 수지타산에 확신이 들어서 신청한 것은 아닐 거예요. 모든 게 불투명한 상태고, 그러나 신문사가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업을 다각화해야 하는 것은 확실하죠. 합리적인 숫자 계산을 통해서 수지타산을 점질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미디어환경이란 것은 이상한 박빙에 의해서 새로운 형식으로 발전하다 보면 새로운 물꼬가 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 지난 관악언론인회 여가자모임에서 기꺼이 여가자들의 멘토가 돼 주기로 하셨는데.

“그 후배들보다 단지 먹은 밥 그릇 수가 많 다보니 그런 역할을 맡게 됐네요. 여자들의 사회진출은 많이 늘어났지만, 네트워크는 무척 약해요. 동종업계 사람들끼리 종으로, 횡으로 연결이 돼서 서로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도움도 받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요. 여자들은 사회 나오면 다 외로운 섬 같아요. 연대의식이 지나칠 정도로 강해 배타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생산적인 의미에서 네트워킹은 필요합니다. 여자 후배들이 이런 것에 빨리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 주제를 바꿔보죠. 영화론과 문화 관련 강의는 꽤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집필하신 책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게을러서 책을 못 썼는데, 준비 중이에요. 답론을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에요. 올해 안에 낼 거라고 제자들과 약속했지만 시간이 날지 걱정입니다.”

— 파리에서 몇 년 공부하셨죠.

“7년 있었어요. 불문학 석사 다음에 영상커뮤니케이션 학사 과정을 하다가 박사과정으로 직행했죠. 불문학 석사를 했기 때문에 유사계열로 인정을 받았어요. 한때는 영화감독을 꿈꾸고 영화 학교도 1년 다녔어요. 다니다가 아무래도 적성이 공부 쪽 같아서 그만 두긴 했지만.”

— 전공이 영상커뮤니케이션이라서 TV 프로그램도 즐겨 보실 것 같아요.

“방송도 중요한 영역이죠. 요즘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인데, 예능이 좋은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에 보려고 하면 다 예능이에요. 그 때문에 다양성이 확 줄었어요. ‘남자의 자격’에서 합창단 도전하는 모습은 재미있게 보긴 했지만, 예능 프로그램은 ‘리얼’이라고 하기보다 다른 형태의 픽션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할 것 같아요.”

— 드라마는 어떻게 보니까.



영화감독 꿈꾸며 영화학교 다니기도 어느 때보다 동문들 격려와 지원 절실

“우리 드라마 수준이 굉장히 높죠. 막장 드라마라 할지라도 서사를 끌어가는 능력은 대단해요. 시각적 기술도 볼 만하고요. 작년에 ‘미남이시네요’란 드라마를 인상 깊게 봤어요. 황당무계한 트렌드 드라마인데, 특별한 시각적 재미가 있었지요. 논의 박하사탕 같은 드라마라고 할까요. 방송에 드라마가 너무 많다고 비판이 많았는데 양이 질로 바뀐 셈이지요.”

— 문리대 65학번이시죠. 제 큰아버지가 수학과 출신인데 문리대에 대한 향수가 아주 크신 것 같더라고요.

“수학과요? 수학은 듣기만 해도... 고3 때 수학을 무척 못했어요. 당시 모의고사의 수 학문제는 주관식으로 6개 정도가 나왔는데, 한 문제도 못 푼 적이 있어요. 사실 수학 때문에 서울대 못 가는 거 아닌가 걱정했어요. 다행히 두 개를 풀어서 들어갔죠. (웃음)”

— 동기 분들이 잘 똥치신다고요.

“1년 내내 행사가 넘쳐요. 모임이 무척 많고 재미있어요. 지난 송년회에는 1백명이 넘게 왔어요. 모두 23개 학과에 입학 인원이 4백15명이었는데 외국에 살거나 작고한 동기를 제외하면 거의 절반이 참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 단과대학 차원에서 그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게요. 또 학과도 문과, 이과 골고루 다 모여요. 분기별 포럼, 봄·가을 여행, 송년회, 총회뿐 아니라 매월 영화·연극 관람, 바둑, 등산, 골프 등 동호회 모임이 무척 잘 이뤄지고 있어요. 집행부의 헌신이 눈물겹습니다.”

— 같은 과가 아니더라도 모이면서 친해진 건가요.

“그럼요. 동창이란 게 묘해서 그 시절에 함께 공유했던 기억만으로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 부부동반으로는 안 모임니까.

“남편, 부인 데려 오면 제명입니다(웃음). 절대 안 돼요. 불문율이에요.”

— (웃음) 저도 동기들끼리 모이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우린 만나면 여전히 서로 남학생, 여학생이라고 불러요. 누가 들으면 어리둥절하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들의 첫 만남이 남학생, 여학생 사이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나이를 먹

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지만 남녀가 모여 술도 한 잔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텐데, 수년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재미 있으면서도 절도를 지키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안 그랬으면 그렇게 많은 동기들이 오랫동안 참석할 리가 없죠.”

— 부군인 공대 기계항공공학부 李敎一 명예교수님과 어떻게 만나셨어요.

“파리에서 유학할 때 남편이 독일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당시 가까운 유럽의 한국인 유학생끼리는 교류가 있었어요. 물론 거기서는 알기만 했었고 한국에 와서 사귀었죠.”

— 두 분이 모교에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기도 하셨네요.

“우리가 평생 서울대에 몸담고 살았는데 그 정도는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능력이 안 돼 더 못한 게 아쉽죠.”

— 같은 학교에 계시면서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 강의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간에 잘 이해해 줄 수 있었던 것이 제일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우수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 준비가 어떤 긴장과 부담을 요구하는 건지, 강의를 실통치 않게 했을 때 느끼는 좌절감 같은 것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였으니까요. 제가 운전을 못하는데 남편 차를 자주 얻어 탈 수 있었던 것도 좋았죠.”

— 남편을 두셨죠.

“둘 모두 공부 중이에요. 빨리 시집, 장가가야 할 텐데, 본인들은 태평이군요. 어디 중매할 분 없나요. 큰 딸(30세)은 모교 미대 서양화과를 나와서 미술컬러비야대에서 예술경영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곧 귀국합니다. 예쁘고 늘씬합니다(웃음). 아들(28세)은 고려대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전공을 바꿔 모교 공대에서 수소전지 분야 박사과정 중이고요.”

— 어떤 사위, 며느리면 좋을까요.

“제 소망이 소용 있겠습니까만은 자기들과 비슷한 짝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서울대 출신들이 애교심이 너무 약해요. 애교심이란 말이 어색할 정도로 말이지요. 워낙 모교가 소속감을 키우기보다 ‘나라의 인재’라는 의식을 더 강조했던 탓도 있겠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똑똑해 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컸다는 생각이 강해 모교에 대한 부담감도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또 일부 동문 중에는 서울대가 특권층이 돼 버렸다는 ‘자격지심’으로 더욱더 모교에 대해 거리를 두고 비판적 시선으로 보려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교는 4년 동안 몸담고 성년이 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낸 공동체가 아닙니까. 지금 서울대는 법인화라는 새로운 체제로 바뀌면서 큰 변화와 전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자율’을 획득하게 되는 대신 ‘책임’도 스스로 지게 됩니다. 새로운 체제에서 모교가 커다란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격려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정리=金南柱기자)



재학생 ‘글로벌봉사단’ 출범 체계적·장기적 나눔활동 추진

모교 소식

지난 1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근대법학교육 1백주년 기념관에서

吳然天총장, 朴明珍부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 및 재학생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봉사단’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모교가 해외 자원

봉사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동아리를 통합해 국제무대에서 재학생들이 봉사와 나눔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吳然天총장은 축사에서 “사회적 성찰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과 타인을 배려하고 국제 사회에 봉사하는 상생의 리더십 속에서 학생들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자라길 바란다”며 “모교가

세계의 친구로 거듭나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서울대인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더욱 선명하게 알리고 서울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자”고 말했다.

모교의 봉사단체로는 해비타트, 나눔고실 해피투게더, 원재연-경영대 글로벌봉사단, 빗물모아 지구사랑 봉사단을 비롯해 이번에 신설된 스누봉사단 등이 있다.

모교의 해외봉사는 2007년 기초교육원이 해외봉사 관련 교과목을 마련하고 단과대학이 재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장려하면서 매년 1백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해 활성화됐다.

모교는 지속적인 국내외 봉사활동을 추진해 연간 6천5백여 명(2010년 2월 기준)이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 글로벌봉사단의 출범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재학 중 1회 이상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동계 프로그램에는 2백여 명의 재학생이 참가하며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비타트(1월 14~23일) : 마닐라 인근에서 사랑의 집짓기와 한국 문화 소개 ▲나눔고실 해피투게더(2월 7~11일) : 필리핀 한국 국제학교 초중고생과 한국의 대학과 역사에 대해 안내, 공부법 전달 ▲스누봉사단(2월 8~18일) : 필리핀 라구나와 바랑가에서 주거시설 보수 및 예체능 교육, 한글과 한국 문화 소개 ▲원재연-경영대 글로벌봉사단(2월 10~24일) : 베트남 호치민대에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소개 활동 ▲빗물모아 지구사랑 봉사단(2월 11~19일) : 베트남 하노이 인근 쿠케 마을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발전기금 SNU 희망 장학금 교직원 등 3억4천만원 출연

모교 발전기금은 지난해 12월부터 ‘SNU 희망 장학금’ 모금 사업을 추진해 한 달 동안 3억4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SNU 희망 장학금’은 모교 교수와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이 솔선수범해 나눔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시작돼 지금까지 30여 명 보직교수와 교직원들이 모금에 동참했다.

이 장학금은 모교 재학생 중 기초생활보조대상자, 차상위계층 가정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吳然天총장은 “총장을 비롯해 보직 교수단이 먼저 기부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기부문화의 확대와 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모교는 앞으로 국립대학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함께하는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에게 사랑 받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교는 세계 정상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5천억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SNU Challenge’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미술관

‘MoA invites 기증전’ 개최

미술관(관장 鄭馨民)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관악캠퍼스 미술관 전시실에서 ‘MoA invites 기증전 2011’을 개최한다.

19일 미술관 2층 강당에서 열린 개막 행사에는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朴明珍교육부총장, 吳星煥사회대 학장, 徐敬浩자유전공학부장, 宋基豪박물관장 등 보직교수 및 기증작가들이 참석했다.

朴明珍부총장은 축사에서 “국내 최초의 대학미술관인 MoA가 개관한 지 6년을 맞이했으며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한국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이번 전시가 가능하도록 작품을 기증하신 작가들을 비롯해 모교와 미술관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미술관이 서울대 구성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차별화된 문화적 기여를 하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대 章殊弘학장의 ‘작은테이블’ 작품을 포함해 46명의 작가가 기증한 작품 60여 점을 관람하면서 한국현대미술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간호대 학장에 李仁淑교수 선임



지난 1월 10일 간호대 학장에 간호학과 李仁淑(간호 73-77) 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李학장은 모교 보건대학원에서 1983년 석사학위, 1990년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역간호학 간호시스템 분야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모교 간호대학 부학장, 간호대 동창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연구업적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코호트 구축 및 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만성질환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이 있다.

경영대 학장에 경영학과 崔 燮교수



지난 1월 23일 모교 경영대 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에 경영학과 崔 燮(경영 75-79)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崔학장은 1981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미국 시카고대에서 1984년 석사학위, 1990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재무학과 교수를 거쳐 1996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경영사례센터장·경영도서관장, 한국선물거래소 시장위원회 위원, 한국증권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2006년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했다. (榮)

경영대학

한·중·일 MBA복수학위제 운영

모교 경영대학과 중국 베이징대 光華管理學院, 일본 히토쓰바시대 (一橋大)는 지난 1월 10일 중국 베이징대에서 ‘베스트 경영대학원 연합(BEST Business School Alliance)’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한·중·일 3개국의 명문 대학이 서구식 경영학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해 운영할 방침이다.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과 히토

쓰바시대는 각각 중국과 일본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경영학 석사(MBA)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히토쓰바시대는 도쿄대 상대의 후신으로 일본 내 1위의 비즈니스 스쿨이다. 현재 도쿄대에는 경영대가 없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해당 3개 대학은 MBA복수학위제 운영, 연구센터 설립 및 학술 심포지엄 개최, ‘원(One) 아시아 최고경영자과정’

개설 등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MBA복수학위제를 통해 각 대학 학생이 본인의 모교와 선택한 학교에서 각각 1년씩 수학해 2년 만에 두 학교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세 대학은 연구와 협력을 위해서 ‘원 아시아 연구센터’(가칭)를 개설하고 연례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한·중·일 경제와 기업의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복수학위제뿐만 아니라 오는 5월에는 3개국의 각 대표기업 15개사의 주요 간부가 참여하는 ‘원 아시아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한

다. 과정생 모집은 2월 말까지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미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아모레퍼시픽, 소니, 일본전기 등 유명 기업 고위 임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이번 협정을 기획한 경영학과와 宋在鎔교수는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중·일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상황”이라며 “항공편으로 한두 시간이면 오갈 수 있는 서울과 베이징, 도쿄 소재의 대표 경영대학원의 협력을 통해 세 대학 모두 세계적인 비즈니스 스쿨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흑한도 녹인 발전기금 열기



吳然天총장, 李禮植동문, 李殷芳명예교수

李禮植·李殷芳동문

신약개발센터 기금 쾌척

지난 1월 5일 약학대학 신약개발센터 건립을 위해 극동제약 李禮植(약학46-49 관악회 이사) 前 명예회장이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했으며, 모교 제약학과 李殷芳(약학55-59)명예교수가 2억원 출연을 약정했다.

신약개발센터는 모교 관악캠퍼

스내 약대(20동) 부근의 9천㎡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들어설 최첨단 복합연구시설로 1백20억원의 정부 지원금 외에 약대 자체 내의 발전기금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동문들의 출연을 통해 약학대학은 신약개발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해 3월중에 착공해 2013년 완공할 예정이다. 두 동문은 출연식에서 “신약개발센터 건립을 기반으로 모교 약대가 더 크게 발전하길 소망하며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모교는 이번 신약개발센터가 완공되면 대학과 제약회사간의 산학협동 활성화를 통한 국내 신약개발 수준이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수의학과 李文漢교수

‘閑雲장학기금’ 1억원

지난 1월 13일 모교 수의학과 李文漢(수의학66-73 대학원동창회장)교수가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閑雲스코필드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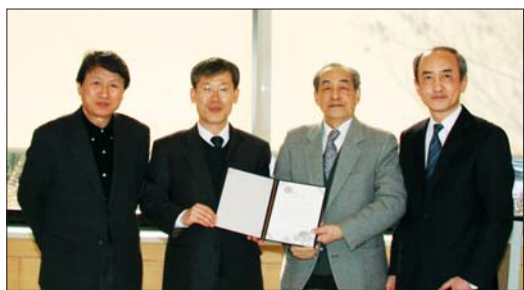
李교수의 아호 ‘閑雲’을 따서 조성된 이 기금은 모교 수의대 재학생과 관악구 청소년 중 학문적 성취가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李교수는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교수들이 솔선수범해 기부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吳然天총장, 李文漢교수

스코필드 박사는 모교 수의대 외래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의 고아와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고 후원하는 일에 여생을 바친 세계적인 수의학자로, 3·1운동의 제34인으로 불리며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된 유일한 외국인이다.



모교 국문과 權寧珉·金倉燮교수, 李敎雄이사장, 경희대 李東鎬교수

李熙昇선생 유족

‘一石장학기금’ 5천만원

국어대사전을 편찬한 국어학자 一石 李熙昇(경성제대30졸)선생의 유족이 지난 1월 13일 모교를 방문해 ‘一石장학기금’으로 5천만원을 출연했다.

李熙昇선생의 장남인 一石학술재단 李敎雄(의학48-52)이사장

은 “생전에 아버님이 국어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학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을 학자를 양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장학기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모교 국어국문학과 재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李熙昇선생은 모교 문리대학장, 동아일보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맞춤법 통일안의 이론적 바탕을 수립하고 국어문법체계를 확립하는 등 국어 발전과 연구에 지대한 공을 세운 국어학계의 태두로 꼽힌다. (榮)

제학생의 소리



첫 여자축구부(SNU WFC) 기억해주세요

여학생을 위한 운동부가 없다는 안타까움과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2010년 처음으로 여자축구부(SNU WFC)를 창단했습니다.

저는 1988년 서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까지 축구선수로 활동했으며, 2008년 서울대에 입학해 체육교육을 주전공으로, 외과학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양한 학과에서 팀원들을 모집해 서울대 여자축구부를 창단한 후 최초로 대회에 참가해서 1승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나 국제축구연맹 (FIFA)에서 알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여자축구부는 타 운동부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체육교육과 위주의 운동부에서 탈피해서 보다 더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운동부로 만들고자 시도했고, 특히 여학생들을 위한 운동부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서 순수하게 여학생만을 위한 운동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달라서, 남학생들과 함께 운동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2010년은 대한민국 여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올해는 더욱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여학생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5월과 11월에 있는 두 개의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 知 炫(체육교육08입)

여자축구부 창단 주장

자축구가 축구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FIFA주관 대회에서 17세 이하 여자 국가대표팀이 우승을 했고, 20세 이하 대표팀이 주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남자만을 위한 운동’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여학생들도 충분히 축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서울대 최초의 여자 운동부이고, 어느 운동부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될 여자축구부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희는 홍보나 시설면에서 모두 부족하지만, 선배님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지해주신다면 서울대 학생들의 운동참여 기회 확대에 더욱 더 많이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콩트 릴레이

호접몽(胡蝶夢)

崔瓊姬

(약학54 - 58)수필가



내가 어젯밤 나비가 되었다
 날갯짓을 하며 꽃 사이로 즐겁게 날아다니다
 불현듯 꿈에서 깨어났는데
 아까 꿈에서 나비가 되었을 때는 내가 나인지 몰랐는데
 꿈에서 깨고 보니 나는 나비가 아니고 나였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정말 나인가 아니면 꿈속의 나비가 나인가

- 莊子の 호접몽 -

TV에서는 9시 뉴스가 막 끝나고, 주중 연속 방송극이 시작되기 전, 상품 선전 광고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선미는 모처럼 얻은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한 남편이 일주일 은 집을 비우게 됐기 때문이다. 때마침 따르통하는 전화벨 소리에 소스라쳐 놀라며

소영이가 치매 요양병원에 있는 선미 친정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요즘은 식사도 잘 하신대, 간병인이 아주 많이 건강해지셨다고 하는데, 글썽 그것이 반갑지만은 않더라. 이런 내가 넘 싫다”
 뽀얀 선미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누구나 못 가본 길이 가고 싶고,
 하지 못하게 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이
 더 크지 않던가.
 선미는 좋은 목소리를
 썩힌 것이 아쉽고,
 전업주부로 자녀 둘을
 기른 것 외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늙어 가는 것이 서글펐다.”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 (서양화02 - 07)

수화기를 들었다.

“애, 잠깐 내려 와. 그 앞 포장마차에서 췌주 한 잔 하자.”

중학교 때부터의 절친 소영이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선미는 두꺼운 패딩잠바를 걸치고 맨 얼굴로 나갔다.

비닐 휘장을 들치고 들어간 포장마차 안에는 연인인 듯싶은 젊은 남녀가 어깨를 감싸고 소곤대고 있고, 만취된 백발의 영감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한 쪽 구석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던 소영이 한 손을 번쩍 들어 손짓했다.

“왜 무슨 일 있어?”

선미가 다그치듯 물었다.

“아니, 강 기분이 좀 꼴꼴해서…”

주문한 술과 안주가 나오자 소영이 익숙한 솜씨로 병마개를 따고, 선미 잔에 술을 따랐다. 선미는 술병을 빼앗아 소영의 잔을 채웠다.

“당. 신. 멋. 저.”

둘은 잔을 들어 부딪치며 합창했다. ‘당. 신. 멋. 저.’는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저주면서 살자’는 건배할 때 하는 신조어다. “엄만?”

에는 선미와 소영이, 중년 남자 두 사람 – 안경을 쓴 남자와 땀땀막한 키의 누런 잠바 입은 남자– 그렇게 네 사람뿐이었다. 누런 잠바가 선미네로 다가오며, 역센 경상도 사투리로 말했다.

“우리 빼까빼까하이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합석하면 안 되겠능고?”

서글서글한 소영이 “그러지요.” 했다. 누런 잠바가 안경잡이를 손짓해 부르며

“뭘 하는 아지멘데 이 시간에 이카고 있능고?”라고 물었다.

어느새 안경잡이도 다가와 소영의 옆자리에 앉았다.

“과출부 일 끝나고 하도 고달파서 친구와 서로 신세 한탄하고 있는데요?”

소영이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그런고? 우리는 청소분데 우리도 이하동문이라예.”

네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소리내어 웃었다.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스스럼없는 잡담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힘겹게 걸치고 있던 체면이란 옷을 훌훌 벗어 던진 후의 편안함이었다.

느닷없이 누런 잠바가 안경잡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서

“이눔아가예~ 카수리에. 우리 이눔아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여.”

하는 것이 아닌가. 몇 번 사양하던 안경잡이가 계속되는 박수에 마지못해 노래를

불렀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용이 부른 ‘잊혀진 계절’을 감미롭게 불렀다. 소영이가 선미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 친구도 가순데요.”

하며 노래하기를 강요했다. 선미가 누군가. S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에 수석으로 입학한 재원이 아니던가. 지금 세계적인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선미 동창보다 못하지 않은 실력을 갖고 있는 선미였다. 소영의 재촉에 선미는 김수희의 ‘남향열차’를 간드러지게 불렀다. 신이 난 안경잡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금수현 작곡의 ‘그네’를 일류 테너 못지 않게 불렀다. 포장마차 주인 내외까지 앞치마를 두른 채 옆에 앉아 큰 박수로 흥을 돋우었다. 선미도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을 고음으로 처리했다. 두 사람의 노래 대결이 됐다. 아니, 두 사람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놀란 눈초리로 바라보던 안경잡이가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의 유명한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을 원어로 불렀다. 마지막 구절 ‘탄토라비타’라 했을 때는 비감하기까지 했다. 선미도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의 ‘어느 맑게 개인 날’을 손짓까지 하며 원어로 불렀다. 모두가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박수를 했다.

시계는 어느새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과출부와 청소부의 그룹 번개팅’이 너무나 즐거웠으며, 그들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밖에 나왔을 때는 질척 같은 어둠 속에서 함박눈이 흠날리고 있었다.

선미가 대학 입학한 것은 광주사태가 일어난 다음 해였다. 교내에서는 끊임없는 집회와 데모가 벌어졌고, 최루탄으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선미는 째새에게 잔인하게 끌려가는 학생들을 보고 분노하면서도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에 자괴감이 들었다. 집에 돌아오면 차매인 할머니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집안 어른의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난 지 3개월만에 졸업도 하기 전, 학교와 집에서 도피라도 하듯 선미는 결혼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라는 것이 집과 학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됐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다. 남편의 냉담하고, 독선적이며, 까다로운 성격이 선미를 힘들게 했다. 진지하게 대화라도 나누려 하면, 피곤하다거나 할 말이 없다고 회피하기 일쑤였다. 가정부로서의 존재감밖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억울했고, 남편이 아속했다.

양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몇 번의 가출 끝에 겨우 허락 받아 결혼한 소영이가 선미는 부러웠다.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던 소영의 남편은 사업한다며 몇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

“그 땐 내 눈까풀에 콩깍지가 씌웠던 거야. 그 인간이 뭐가 좋았던지. 허황하다는 울 엄마 말씀이 백 번 옳아. 엄마 말 안 들었다가 이 나이에 고생만 하고 있지 않냐?”

소영의 탄식에 선미는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했다.

“절없는 소리하지 마. 뭐, 사랑이 밥 먹여 주던?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 그리 오래 안 가. 옥시토신인가 뭔가 하는 호르몬이 맥시멈 3년이면 끝난다지 않니? 로미오가 맨날 ‘사랑의 가벼운 날개를 달고…’ 어찌고 할 것 같냐? 이도령인들 나이 들어서도 춘향이에게 ‘어화둥둥 내 사랑아…’ 그럴 것 같나구”라며 소영이 열을 올렸다.

누구나 못 가본 길이 가고 싶고, 하지 못하게 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이 더 크지 않던가. 선미는 좋은 목소리를 썩힌 것이 아쉽고, 전업주부로 자녀 둘을 기른 것 외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늙어 가는 것이 서글펐다.

그런데 지난 밤, 느닷없이 나타난 안경잡이가 선미를 3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 마음이 들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안경잡이의 노래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아 밤잠을 설쳤다. 마법에라도 걸린 것 같았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을 선미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마당발인 소영이 달려와 빅뉴스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애, 너 왕재수 알지?”

선미는 중학교 때, 재벌 외손녀로 그런저 타고 거들먹거리던, 싸가지 없는 양지수, 모두가 왕재수라고 불렀던 친구를 떠올렸다. “글썽 그 안경잡이가 왕재수 남편이라. 청와대 비서실의 아무개라는데?”

“모든 게 꿈이었어. 인생이 일장춘몽 아니던가.”

선미는 중얼거렸다.

동 정

수 상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분회 부회장)=지난 1월 7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여성신문이 수여하는 '2010 올해의 인물상' 수상.

▲韓珣淳(물리57-60 前한국원자력연구소장)=지난 12월 27일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열린 원자력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수훈.

▲柳興洙(법학58-65 한일친선협회 이사장)=지난 1월 19일 한·일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일본대사관저에서 '육일 중수장' 수훈.

▲洪允杓(국문60-64 前연세대 교수)=지난 1월 21일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 기념식에서 국립국어원장 감사패 수상.

▲鄭正佺(행정61-65 모교 행정대 학원 명예교수)=지난 1월 14일 미국 미시간대 한국동문회 신년회에서 공로상 수상.

▲李長茂(기계공학63-67 前모교 총장·기후변화센터 이사장)=지난 1월 11일 경기고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경기인상 수상.

▲辛永茂(법학63-67 前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지난 1월 17일 서울고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서울인상 수상.

▲金丁勛(토목공학64-68 모교 환경대학원 교수)=지난 1월 20일 한국환경기체클럽이 수여하는 올해의 환경인상 수상.

▲南永信(법학67-71 국어문화운동본부 대표)=지난 1월 21일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 기념식에서 국립국어원장 감사패 수상.

▲李承奎(의학67-73 서울아산병원 교수)=지난 1월 11일 경기고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경기인상 수상.

▲徐禎穆(국문72졸 서강대 교수)=지난 1월 21일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 기념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嚴翼俊(건축69-73 한국건설VE연구원 부원장)=최근 국토해양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 수상.

▲李基甲(언어77졸 목포대 교수)=지난 1월 21일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 기념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朴昌遠(국문73-81 이화여대 교수)=지난 1월 21일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 기념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金駿圭(법학75-79 검찰총장)=지난 1월 14일 미국 미시간대 한국동문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

▲白昌基(경영76-80 동양자산운용 사장)=최근 서울경제신문 주최 '2010 국가경쟁력 대상' 시상식에서 금융위원장상 수상. 한국

경제신문 주최 '2010 올해의 CEO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CEO대상(인재경영부문) 수상. 제20회 다산금융상 시상식에서 금상(투신운용부문) 수상.

▲金相範(경영78-82 이수그룹 회장)=지난 1월 14일 미국 미시간대 한국동문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

▲姜南薰(무역79-83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지난 12월 27일 원자력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 산업훈장 수훈.

▲安英寅(대기과학84-88 SBS 사회부 차장)=지난 1월 19일 한국과학기자협회로부터 제4회 건양의학기자상 수상.

▲金東克(행정84-86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지난 1월 14일 미국 미시간대 한국동문회 신년회에서 감사패 수상. 19일 덕수고동창회 총회에서 '장한 덕수인상' 수상.

▲柳漢翔(AMP 37기 봉산 대표)=지난 1월 11일 송문중·고교동문회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송문인상 수상.

▲金重謙(AMP 64기 현대건설 사장)=지난 12월 27일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열린 원자력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邊俊淵(AIP 39기 한국전력 부사장)=지난 12월 27일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열린 원자력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인 사

▲桂昌鎬(정치54-58 前강원아침신문 사장)=최근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소장에 취임해 월간지 '北韓'을 채신해서 발간.

▲韓道龍(응용미술54-58 홍익대 명예교수)=지난 1월 3일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2기 자문위원에 선정.

▲黃秉冀(법학55-59 이화여대 명예교수)=지난 1월 3일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2기 자문위원에 선정.

▲金東虎(행정56-61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지난 1월 13일 강원문화재단이사장에 임명.

▲李相文(상학57-61 미국 네브래스카주립대 석좌교수·범태평양학회 회장)=지난 1월 3일 우송대 명예총장에 위촉.

▲金泳吉(금속공학60-64 한동대 총장)=지난 1월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17대 회장에 선출.

▲安秉萬(행정60-64 前교육과학기술부 장관)=지난 1월 5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위촉.

▲金裕恒(화학공학62-66 前대학협의회 대학종합평가위원·인하대 교수)=지난 12월 29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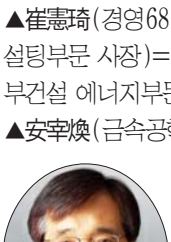
▲崔慶元(법학63-67 前법무부장관·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지난 1월 10일 검찰동우회 제6대 회장에 선출.

▲鄭求鉉(경영65-69 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지난 1월 20일 한국경영교육인증제 3대 원장에 선임.

▲金鍾燮(사회사업66-70 삼익악기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1월 12일 임기 2년의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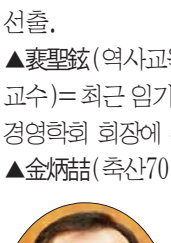


▲權寧珉(국문71졸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지난 1월 3일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2기 자문위원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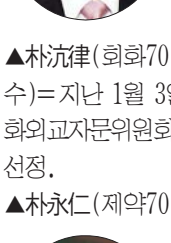
▲崔憲琦(경영68-75 동부CNI 컨설팅부문 사장)=지난 1월 5일 동부건설 에너지부문 사장에 선임.

▲安宰煥(금속공학69-73 아주대 교수)=지난 1월 17일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회에서 임기 4년의 아주대 제14대 총장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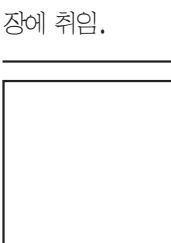
▲裴聖鉉(역사교육69-73 영남대 교수)=최근 임기 1년의 한국산업경영학회 회장에 선임.

▲金炳喆(축산70-76 고려대 교수)=지난 12월 29일 고려대 제18대 총장(2011년 3월~2015년 2월)에 선임.



▲朴沆律(회화70-74 세종대 교수)=지난 1월 3일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2기 자문위원에 선정.

▲朴永仁(제약70-74 前한국생화학 및 분자생물학회 회장·고려대 교수)=지난 1월 3일 임기 1년의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회장에 취임.



▲金明學(경대원70-72 상지대 교수)=최근 한국기업경영학회 제15대 회장에 선임.



▲朴君哲(원자핵공학71-75 모교 원자핵공학과 교수)=지난 1월 1일 국제학술지 '원자력공학과 디자인' 편집인에 선임.

▲權鎮鳳(농공학71-78 前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前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지난 1월 5일 한국감정원 원장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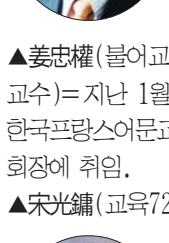
▲吳世正(물리71-75 모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지난 1월 20일 임기 3년의 한국연구재단 제2대 이사장에 취임.



▲朴漢徹(법학71-75 前서울동부지방법청 청장·변호사)=지난 2월 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취임.



▲林石植(경영71-75 서울시립대 교수)=지난 1월 14일 임기 3년의 한국회계기준원 제5대 원장에 선임.



▲姜忠權(불어교육72-76 아주대 교수)=지난 1월 1일 임기 1년의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제11대 회장에 취임.



▲宋光鏞(교육72-76 서울교육대 총장·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회장)=지난 1월 5일 한국교원교육학회 제22대 회장에 취임.



▲金明洙(경영73입 前조달청 시설사업국장·서울지방조달청장)=지난 12월 28일 조달청 차장에 임명.



▲鄭世赫(미학74-78 前두산 의류BG장)=지난 1월 3일 플로랄프로렌 코리아 대표이사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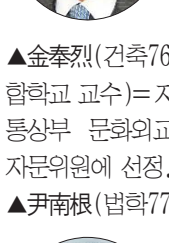
▲禹卿植(해양75-79 강원대 교수)=최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동굴연맹학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



▲吳在寅(경영76-80 단국대 교수)=지난 1월 1일 임기 1년의 한국경영정보학회 제19대 회장에 취임.



▲吳尙錄(전자공학76-8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지난 1월 5일 한국로봇학회 회장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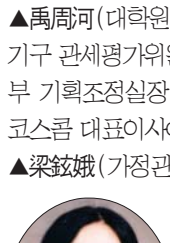
▲金奉烈(건축76-80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지난 1월 3일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2기 자문위원에 선정.



▲尹南根(법학77-84 前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고려대 교수)=지난 1월 20일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



▲宋賢鎬(대학원82졸 아주대 교수)=지난 1월 20일 임기 2년의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학진흥사업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禹周河(대학원82졸 前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위원회 의장·前국방부 기획조정실장)=지난 1월 4일 코스콤 대표이사에 선임.



▲梁鉉娥(가정관리84졸·사회84-88 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1월 20일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



▲朴成重(행정원81-85 前서울시 서초구청장)=지난 12월 31일 임기 3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4대 사무총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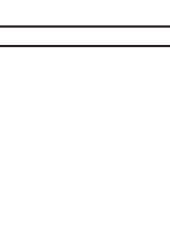
▲李秉武(보대원82-84 성균관대 교수)=최근 한국독성학회 및 한국환경성독물연변이 발암원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李城圭(행정원86-88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지난 1월 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2대 이사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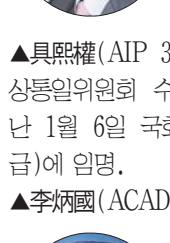
▲具吉本(한대원88졸 前산림청 산림이용본부장·북부지방산림청장)=지난 1월 7일 국립산림과학원 원장에 임명.



▲崔貞淑(AIP 24기 포커스컴퍼니 대표)=지난 1월 26일 임기 2년의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에 취임.



▲文惟賢(AIP 27기 前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지난 1월 14일 경기테크노파크 제5대 원장에 취임.



▲具熙權(AIP 35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지난 1월 6일 국회 사무차장(차관급)에 임명.



▲李炳國(ACAD 68기 前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지난 12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



▲裴判圭(ABP 7기 前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지난 1월 1일 NH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安鎬元(HPM 6기 부전대 객원 교수·법무부 범죄예방위원)=지난 1월 14일 서울시 영등포구 예술인총연합회 부이사장(차기 이사장)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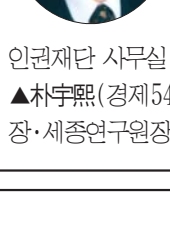


▲金亨澈(ASP 12기 前한국경제매거진 사장·前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지난 1월 10일 시사저널 대표이사 겸 발행인에 선임.



▲李世中(행정53-57 현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재단 이사장·본회 부회장)=지난 1월 24일 서울서초동에서 인권재단 사무실 개소식 개최.

▲朴宇熙(경제54-58 세종대 총장·세종연구원장)=지난 1월 27



행 사

▲李世中(행정53-57 현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재단 이사장·본회 부회장)=지난 1월 24일 서울서초동에서 인권재단 사무실 개소식 개최.

▲朴宇熙(경제54-58 세종대 총장·세종연구원장)=지난 1월 27

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吳世勳서울 시장을 초청해 세종포럼 개최.

▲張潤宇(응용미술56-62 성신여대 명예교수·서울문우회장)=지난 1월 20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신문 당선작가 신임회원 환영 및 시상식 개최.

▲金 旻(기약60-64 모교 기약과 명예교수·서울바로크합주단 상임지휘자)=지난 1월 27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신년맞이 나눔음악회 개최.

▲趙美翎(의학61-67 모교 명예교수·한국건강관리협회장)=지난 12월 20~27일 아프리카 수단 화이트나일주 방문, 국제빈곤퇴치 기여금 지원 및 식수공급 시설 완공식 개최.

▲辛鉉雄(지리64-68 웅진재단 이사장·분회 부회장)=지난 1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웅진R&D센터에서 수학·과학·예술 영재 장학생 1백6명에게 장학금 4억원을 전달하고 멘토링 실시.

▲鄭雲燦(경제66-70 前모교 총장·前국무총리·동반성장위원장)=지난 1월 29일 모교 미주 재단 주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르워키시 더블트리호텔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한국의 과거,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

▲金永龍(금속공학70-74 한국경

제연구원장)=지난 1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11년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安炳燦(신대원71-75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월 17~19일 경기도 의왕시 마리아밸리센터에서 '정소년미디어인권캠프' 개최. 28일 서울 인사동 신영연구기금회관에서 제10차 언론인권센터 정기총회 및 제9회 언론인권상 시상식 개최.

▲權在一(언어72-76 모교 언어학과 교수·국립국어원장)=지난 1월 21일 국립국어원 대강당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 개최.

▲李一煥(영문73-77 국민대 교수)=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1년 판에 등재.

▲韓鈞桓(지질과학74-78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지난 1월 18일 연구원에서 일본정척대학 원대학과 공동으로 제2차 한·일 지방자치 제도 연구회 개최.

▲許 垠(기약78-82 모교 강사·피아니스트)=지난 2월 11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드뷔시, 베토벤, 슈만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方碩皓(법학77-81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지난 1월 18일 한국언론재단에서 '방통융합과 세계 주요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

랑스)의 미디어지형 변화'를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李相起(서양사학81-87 아시아기자협회 창립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월 24~26일 알-아라비 매거진 초청을 받아, 쿠웨이트에서 열린 'Arabs go East' 주제의 콘퍼런스에 참석.

▲趙允旋(외교84-88 국회의원·한국국제협력단 대외원조 홍보대사)=지난 1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를 방문해 봉사 활동.

▲정남일(기약86-90 수원시립교향악단 악장·바이올리니스트)=지난 2월 12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모차르트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鄭盛文(기약92-96 서경대 강사·피아니스트)=지난 2월 6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흐, 브람스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김현서(기약03-07 서울바로크합주단 단원·첼리스트)=지난 2월 13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베토벤 등의 작품으로 귀국 첼로 독주회 개최.

▲金泰完(ACAD 44기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지난 1월 24일 부산KBS홀에서 국가안보와 호국실천을 위한 범불교대회 개최.

■삼가 명복을 빕니다■

소설가 朴婉緒동문 별세

지난 1월 22일 소설가 朴婉緒(국문50입)동문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담낭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80세.

1931년 경기 개풍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0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현상공모에 '裸木'이 당선돼 소설가로 등단했다.

1950년 모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으나 6·25전쟁 발발로 학업을 중단했던 그는 2006년 국내 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모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족으로 盧源淑(국어교육72-76 작가), 원순, 源慶(의학76-82 모교 의대 교수), 원균 씨 등



4녀와 사위 黃昌潤(지리72-76 신라대 교수), 김광하(도이상사 대표), 權五楨(의학76-82 성균관대 의대 학장), 金章燮(화학78-82 대구대 교수)씨가 있다. 유해는 경기 용인시 천주교 공원묘지에 안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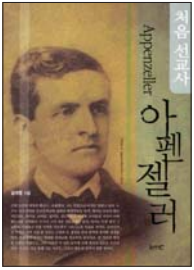
- ▲申昌浩(경성사범41졸 UPA 회장)=1월 20일 별세(92세)
- ▲金鳳洽(전기공학43졸 한양대 명예교수)=1월 3일 별세(89세)
- ▲安在鏞(의학44-50 순안병원 명예원장)=1월 14일 별세(85세)
- ▲金在順(화학51졸 前성심여대 총장)=1월 30일 별세(84세)
- ▲金鍾錫(토목공학48-52 前인하공전 교수)=1월 9일 별세(83세)
- ▲李武九(정치49-54 쌍용화재 대리점 대표)=1월 5일 별세(81세)
- ▲李興天(수학교육49-57 서강대 명예교수)=1월 18일 별세(84세)
- ▲朴斗一(수학52-56 前명지대 부총장)=1월 7일 별세(79세)
- ▲權宗根(법학54-58 법무법인 천우 고문)=1월 4일 별세(78세)
- ▲崔德源(국어교육54-58 前순천대 총장)=1월 4일 별세(76세)
- ▲趙康熙(의학59-65 前서울백병원장)=1월 11일 별세(71세)
- ▲曹勝鉉(지리교육64-68 전남대 교수)=1월 3일 별세(66세)
- ▲李進源(경대원68-69 前대한방직협회 전무)=1월 26일 별세(84세)
- ▲鄭榮森(산업공학70-74 前YBM시사 대표)=1월 13일 별세(60세)
- ▲張聖珠(대학원78졸 한양대 교수)=1월 13일 별세(63세)
- ▲成百辰(AMP 36기 前SK임업 대표)=1월 28일 별세(70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 처음 선교사 아펜젤러 — 金錫營 지음



위대한 선교사다.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를 지낸 칼럼니스트 金錫營(행정51-55)동문이 집필한 이 책은 조선의 첫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의 복음을 전파 하는데 온 생애를 바친 열정과 헌신을 보여준다.

종횡무진 선교 활동에 나섰던 그의 행적은 지금까지 한국 감리교회가 놀랄 만한 발전을 가져온 데 원동력이 된다. 아펜젤러가 실천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했던 거룩한 정신은 감동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도서출판kmc刊·값11,000원)

■ 관악초청강연

— 모교 기초교육원



모교 기초교육원(원장 許南進)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교양을 전하기 위해 2004년부터 모교에서 진행된 ‘관악초청강연’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시리즈이다.

‘나의 삶, 나의 시-백년이 담긴 오십년’에는 한국시 1백년의 역사와 함께 격류와도 같은 삶을 살아온 高銀(모교 초빙교수)시인과의 진솔한 대화를 담았다.

‘여럿이 함께 숲으로 가는 길’에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통해 더불어 숲을 이루는 길에 이른 성공회대 申榮福(경제59-63)석좌교수의 강연내용을 실었다.

‘문학에서 경영을 배우다’에는 문학에서 인생과 경영을 배우며 지식을 넘어 지혜의 의미를 발견한 경영의 대가인 한양대 尹錫喆(물리58-63)석좌교수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나는 왜 아직도 연기하는가’에

는 여든의 나이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연기하며 인생과 예술을 이야기하는 배우 李順載(철학54-58 세종대 석좌교수)동문과의 솔직한 대화를 게재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각 값9,500원)

■ 탁영 김일손 선생의 개혁도학정신과 문학세계 — 金鍾憲 편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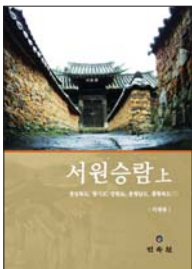
조선 시대 문신 濯纓 金駟孫선생의 개혁 사상과 문학세계를 16대손인 瑞崗 金鍾憲(경제55-59 서

해안문화연구소 회장)동문이 정리했다. 金駟孫선생은 安民策과 개혁도학정치를 실현하고자 성종과 연산군에게 상소·직언을 주저없이 펼친 외교가·병략가·정치사상가이며, 중국 당송 8대가와 비견될 정도로 詞章, 詩書畫 및 音律의 대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金동문은 부친인 淸菴 金泰坤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지난 1월 4일 본회에 청암서강장학회 기금으로 5천만원을 출연한 바 있다. (청암죽립재刊·비매품)

■ 서원승람 (상)·(하)

— 李泰東 지음



현대 건설 상무를 지낸 李泰東(건축 64-68 피비

코리아 부사장)동문이 현존하는 9백여 개 서원을 답사한 결과물을 출간했다.

각 서원들의 사진과 위치 정보, 특징, 접근경로를 밝히고 있으며 훼손되거나 잊혀져간 미복원 서원들도 찾아내어 수록했다.

(상)권에서는 경상북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서원들을 살펴본다.

(하)권에서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에 있는 서원들을 설명했다. (민속원刊·각 값60,000원)

■ 헬스케어 의류 — 崔正和 외 지음



이제 의류 전문가는 질병의 예방을 위한 의생활 교육뿐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의복의 착용과

관리 지침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 책은 병·의원의 의류제품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그와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모교 의류학과 崔正和(농가정64-68)교수 등을 비롯한 저자들은 의복환경과 건강을 이해하고, 병·의원의 의류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인체생리적인 면, 의복 소재 면, 의복 관리 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IT)을 비롯한 최근의 최첨단 기술이 의류에 접목되고 있는 양상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부록으로는 외국 의료기관의 사례를 꼼꼼히 실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 23,000원)

■ 아흔 개의 봄 — 金基協 지음



역사학자 金聖七(경성 법학37졸)동문의 삼남인 金基協(사학 72졸)동문이

치매로 쓰러진 어머니(李男德 경성제대45졸)를 바라보며 써내려간 간병기. 어머니의 소식을 글로 써서 전하며, 월간 ‘불광’에 연재했던 ‘시병일기’를 엮어냈다. 어머니를 직접 모시지 못하는 金동문의 고뇌와 늘 가까이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함께 한 시간들이 담겨 있다. 아들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죄의식을 조금씩 벗어나 어머니와의 관계 변화를 꾀하는 저자의 진솔한 이야기가 감동을 전한다.

더불어 한 인간으로서 金동문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고, 어머니와의 화해가 세상과의 화해, 나 자신과의 화해를 불러내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다. (서해문집刊·값12,900원)

■ 사회의 질 동향 2009 — 鄭鎭星 외 지음



모교 사회학과 鄭鎭星(사회 회 72-76)·李在烈(사회 회 80-84)·朴京淑(사회 회 86-90)교수, 부산대 安釘沃(사회84-88)교수, 광주과학기술원 張眞豪(사회88-92)교수 등 모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팀이 2007년부터 3년간 진행해온 ‘사회적 질’ 연구의 세 번째 결과물.

사회적 질(Social Quality)이란 좋은 사회를 반영하는 사회의 여러 성격들을 가리킨다.

공연

■ 趙允敬 피아노 독주회 — 2월 18일 금호아트홀



단국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趙允敬(기악91-95)동문(사진)이 2월 18일 오후 8시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趙동문은 이날 하이든, 스크리빈, 쇼팽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金珉志 피아노 독주회 — 2월 28일 예술의 전당



프랑스 Conservatoire National de St-Maur Supérieur 피아노과 및 반주과를 졸업한 金珉志(기악92-96)동문(사진)이 2월 28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한다.

金동문은 이날 베토벤, 브람스, 리스트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부암아트 391-9631)

이 책은 1990년 후반에 경제 발전을 넘어서 사회통합이 절실해진 유럽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사회의 질 연구와 논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살펴본다. 약 90여 개의 지표들을 선별해 일일이 개념을 검토한 후에 한국의 사회의 질을 보여줄 좌표를 구성하고자 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15,000원)

■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 宋喆儀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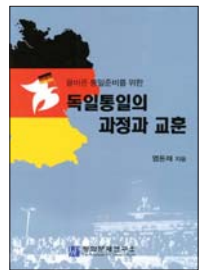
한국 근대 어문 연구사와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모교 국어국문학과 宋喆儀(국문72-76)교수의 역작인 ‘주시경의 언어 이론과 표기법’에는 우리나라 표기법 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周時經의 이론을 고찰함으로써 한글 표기법의 뿌리를 찾는 연구의 과정이 담겨 있다.

표기법과 맞춤법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대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된다. 언어와 문자 및 표기법이 정비되지 않고서는 지식의 소통이나 국민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국가의 근대화와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책은 그러한 일을 주도적으

로 했던 인물인 周時經의 언어이론을 살펴보고, 그 언어이론이 그의 표기법 이론에 미친 영향을 추적함으로써 ‘한글 맞춤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립됐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 20,000원)

■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 廉燾載 지음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성균관대 廉燾載(행대원 95-98)국가전략대학원장이 1990년 8월부터 3년간 駐독일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면서 독일통일의 일선현장에서 독일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통일을 달성했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묵묵히 지켜본 심정을 국민들에게 전하고자 출간한 책.

이 책에는 필자가 독일 근무 중 각계 인사들과 면담한 내용, 그 후 귀국해 국제문제조사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연구한 내용, 그리고 최근 5년간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했다.

廉동문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독일통일은 화해·협력 정책, 독일관 햇볕정책 때문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힘이 우위’ 정책이 거둔 성과라고 밝혔다. (평화문제연구소刊·값15,000원)

장학빌딩 ‘명예의 전당’에 새겨질 동문님의 건립기금 출연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2007년 6월 25일 첫 삽을 들어 시작한 장학빌딩이 동문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고마운 뜻을 장학빌딩 내 명예의 전당에 새겨 영구히 보존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수록할 예정이오니 본인이나 선후배, 동기분들의 납입 내용을 확인하시고 누락, 오기, 수정 내용이 있으시면 총동창회 사무실(02-702-22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출연해주신 분의 명단을 이번 호에 게재합니다. 명예의 전당에 보존될 명판의 제작기간을 고려해 2011년 2월 말까지 모금을 마감하여 납입된 내용을 수록할 예정이며, 약정을 하신 분들은 최종 완납 확인 의사를 동창회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게재순서는 ①금액별 — ②성명 가나다순입니다.
- 금액별 구분은 ① 1억 이상 (금액별) ② 5천만원 이상 ③ 5천만원 미만~1천만원 이상 ④ 1천만원 미만~1백만원 이상 ⑤ 1백만원 미만 등으로 분류합니다.
- 수록내용은 금액별 구분 아래 ①성명 ②단과대학(원) 또는 특별과정(영문) ③입학연도 또는 기수 등 세가지 내용으로 수록합니다.
- 공동명의로는 성명을 함께 표기(△·)했습니다.

◆ 1억원 이상

△홍예표(치대65)

·김영숙

△황해근(공대54)

·이금옥

△수학과동창회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이세영(약대57)

◆ 5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김도언(법대58)

◆ 1천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강의정(사대61)

△고동환(인문대77)

·천경희(가정대78)

△구본성(법대72)

△김국기(의대61)

·김남호(법대92)

△김동휘(상대48졸)

△김오환(치대62)

△김윤호(문리대59)

△박순철(법대83)

△박승철(사대57)

△신용길(인문대72)

△우수현(미대91)

△우승원(미대89)

△유익선(공대59)

△윤덕순(법대59)

△윤정경(법대55)

△윤정복(공대63)

△윤제용(공대80)

·정현미(인문대87)

△이민웅(문리대61)

△이상민(자연대90)

△이재식(사대75)

△임 철(사회대75)

△임연기(대학원81)

△임중연(공대83)

△장갑석(문리대53)

△정경수(공대52)

△정성현(공대67)

△정정자(사대56)

△정해운(상대46)

△조인균(인문대76)

△최병륜(법대56)

·김증자(사대61)

△최종찬(상대68)

△한갑수(문리대52)

△허재원(상대56)

△현준상(자연대90)

·유정아(미대92)

△황건호(상대70)

◆ 1백만원 미만

△고봉훈(AIP11)

△구성호(미대86)

△김배원(수의대60)

△김익동(AIC3)

△김지영(사대93)

△김지현(인문대94)

△김창락(문리대56)

△남강록(공대80)

△류대현(미대87)

△문나리(미대90)

△문성무(의대60)

△박은실(사대02)

△박주환(법대63)

△박중희(공대03)

△박찬욱(사회대72)

△상기중(치대51)

△송명섭(사회대95)

△송영수(법대56)

△송정은(미대91)

△심정근(농대60)

△오성광(농대80)

△오영진(법대65)

△윤성근(인문대88)

△윤영인(농대87)

△이경희(사회대96)

△이상순(미대60)

△이상의(가정대56)

△이상혁(법대54)

△이영주(사대56)

△이원복(공대46)

△이윤달(상대62)

△이장섭(농대52)

△이학준(농대88)

△정 경(대학원92)

△정병렬(공대84)

△정상조(보대원67)

△정택순(상대53)

△조창한(공대55)

△주승훈(농대96)

△최 웅(문리대69)

△최경숙(자연대81)

△최성우(공대73)

△최승호(농대83)

△황관일(법대58)

〈2010년 12월 22일부터 2011년 1월 21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0년 12월·2011년 1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2010. 12. 21~2011. 1. 14)·일반(2010. 11. 19~2011. 1. 14)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尹勤煥= 50만원
△부회장 崔斗衡= 1백만원
△부회장 李世中= 50만원
△부회장 郭永駢= 1백만원
△부회장 安秉勳= 1백만원
△부회장 卞柱仙= 1백만원
△부회장 朴容昰= 1백만원
△부회장 吳 明= 50만원
△부회장 辛鉉雄= 50만원
△부회장 金鍾燮= 1백만원
△부회장 愼昌宰= 1백만원
△감 사 朴英俊= 30만원

관 악 회

△이 사 趙弼濟= 30만원

상임이사

△李萬儀 한대원동창회장= 20만원
△曹白一 SGS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창재 사회74
△구인회 인문80 △김경원 치대81
△김낙기 ACAD63 △김무기 미대83
△김문식 수의79 △김민수 經院70
△김민채 SPAR7 △김세환 문리72
△김순자 미대62 △김영숙 간호55
△김의숙 생활76 △김우식 AFP1
△김윤옥 법대67 △김일동 AMPP6
△김재삼 문리66 △김주완 공대70
△김창섭 법대68 △김호석 농대83
△나까르 大院80 △도철호 치대79
△류재연 생활78 △박연형 농대82
△박영희 생활70 △박준걸 농대71
△박찬홍 법대80 △반정우 법대87
△백찬하 법대83 △변미혜 음대75
△변중석 상대60 △서석호 법대79
△성태훈 경영86 △송 활 공대80
△신용도 법대79 △신태길 법대73
△신현우 치대73 △염기선 수의74
△오동희 공대78 △유동일 공대75
△윤종현 법대73 △윤진산 공대69
△이갑승 치대74 △이동주 ACAD56
△이부원 SGS20 △이상만 AMPP7
△이상용 사회74 △이상우 공대77
△이상원 법대80 △이양규 SPAR12
△이재일 공대74 △이정상 AMP49
△이지우 농대83 △장기석 공대88
△장병환 사대52 △장은하 치대83
△전상배 AMP42 △정승용 의대85
△정하원 의대78 △조수경 자연74
△조신완 공대77 △조영웅 수의63
△조호영 SPAR11 △주호영 ALP2

△채수인 GLP11 △최 황 의대63
△최동훈 사대79 △최윤희 의대81
△최준표 수의74 △최진호 사대82
△표경식 保院97 △한동화 SPAR15
△한동훈 농대83 △허운나 문리67
△홍상복 공대62 △홍찬의 치대73
△황성주 약대76

(일반) △강경운 법대84
△강신택 문리55 △강원택 사회81
△강하구 사대68 △고봉진 문리57
△고영환 문리55 △고종진 법대56
△권영자 문리55 △권영철 치대05
△권희경 ACAD57 △기우종 법대85
△김강유 공대02 △김건열 의대53
△김경수 경영78 △김구수 의대71
△김기중 문리59 △김동호 공대86
△김미주 자연01 △김범상 공대87
△김선운 경영92 △김성규 상대67
△김수환 치대97 △김승웅 공대77
△김승호 법대90 △김연호 AIP43
△김우준 공대98 △김을식 AIP23
△김응호 공대70 △김재찬 ASP4
△김재한 공대54 △김정학 법대71
△김종웅 GLP19 △김주훈 AMP19
△김진호 의대55 △김철중 농대64
△김태영 HPM9 △김필식 농대61
△김한복 자연78 △김현숙 법대01
△김홍국 공대84 △김흥렬 상대63
△나병현 사대76 △문명자 음대63
△민승기 의대86 △박명수 사회87
△박성민 농대03 △박성환 문리60
△박순석 AMP38 △박채화 자연81
△박춘란 법대84 △서건일 문리58
△서의권 SGS18 △서형희 사대65
△송문선 문리56 △송세영 인문86
△송완섭 AMP68 △송정희 음대61
△송지현 농대68 △송홍지 保院97
△신웅일 大院93 △신희균 약대72
△심미혜 사대64 △심재진 공대76
△안재혁 공대01 △양태희 AMP67
△오성태 의대84 △오인현 상대60
△오정수 AMP28 △오진식 수의86
△오준자 AFB10 △온해정 음대71
△윤 혁 법대71 △윤규한 APC9
△윤상의 인문81 △윤일권 공대90
△윤재운 사대71 △이경구 AIP23
△이경희 사회96 △이근섭 자연83
△이근호 공대67 △이상욱 농대86
△이승곤 保院71 △이양수 법대82
△이영만 인문83 △이원복 공대46
△이은선 의대02 △이종재 사대64
△이지수 법대59 △이철규 GLP18
△이해연 공대06 △이호창 경영91
△이희준 사회72 △임송희 미대56
△임창빈 농대56 △임창빈 농대56
△장문의 약대65 △장병문 약대46

△장신이 保院01 △장홍주 문리70
△전종관 의대80 △정수성 AIP26
△정요성 AMP69 △정은자 음대83
△정효재 법대82 △조규학 사대64
△조영주 미대02 △조현오 大院86
△진성희 간호70 △최광철 치대58
△최수봉 자연96 △최승관 공대73
△최승태 SGS17 △최원태 공대04
△최은정 치대00 △히동훈 문리54
△하영태 AMP14 △한기상 사대64
△한다운 미대05 △한말숙 문리50
△허 군 사대02 △홍성장 사회89
△황주원 수의67

이 사

◆인문대 △김병철76 △김원환81
△김학래74 △나성린72 △신언훈74
△유 식79 △이동일85 △이선일79
△이종범72 △정제문72 △추희엽83
△한병희77
◆사회대 △강암구72 △김남기77
△김동선76 △김용숙76 △김용표81
△김충환73 △남기섭76 △류성록82
△박 철81 △방창식83 △손광락74
△손문호76 △이동훈74 △장환빈73
△정봉교72 △정인억73 △정해영72
△조영일77 △차명진79 △황성욱85
◆자연대 △김진익84 △김철호74
△신현철78 △양명룡74 △이덕희77
△이동한77 △이명재83 △이종섭73
△진 민78 △최진우75 △최진혁71
△한용택75
◆간호대 △권영숙74 △김영숙75
△김장언79 △윤영희75 △정규숙84
◆경영대 △권기출72 △변재진72
△성락현76 △오민철83 △원효성79
△정영철76 △최석원70
◆공대 △강영훈72 △강효순68
△강희신85 △곽병현67 △곽정석50
△구정기73 △구창용60 △권수웅57
△권용수81 △김남호70 △김대식78
△김명린61 △김명진78 △김석홍81
△김성도75 △김성태53 △김왕신73
△김인선65 △김재수77 △김재환63
△김종암83 △김종필70 △김주홍47
△김태업68 △김호수63 △김환정71
△남상률70 △남장수64 △노승택62
△노용래72 △노흥규66 △마상덕69
△문영기69 △문정석65 △문창환75
△민경식67 △박근통61 △박성현64
△박진동65 △박용규58 △박재룡68
△박찬백67 △박홍준71 △배건성73
△배시화72 △부준홍74 △부창렬77
△서정만64 △서태석76 △손창규79
△손태원72 △승효상71 △신동식72
△신상호76 △신철영70 △심이택57
△심재원66 △안사은57 △안용수73
△양기정67 △오정일64 △오창석52

△윤경원92 △윤경훈71 △윤석열73
△이 선59 △이금석59 △이남순72
△이대성89 △이상현70 △이성규58
△이순병68 △이용경60 △이원세71
△이응숙76 △이재현67 △이종훈53
△이창복56 △이홍구75 △이희달70
△이희웅73 △임석철76 △임재열82
△장세창65 △장익용54 △장학순46
△전효택67 △전희상70 △정기출73
△정금영77 △정석규48 △정성민61
△정태현73 △정형수59 △조형제51
△지성균71 △최영명69 △최완철69
△최용진84 △최정혜86 △최형남66
△현희현59 △홍광표54 △황규승64
△황성호84 △황인석68
◆농대 △곽유신82 △곽지상52
△김광호61 △김남훈58 △김석한89
△김원일84 △김윤경70 △김창성81
△김풍진71 △나찬희73 △박선현71
△서광섭79 △서완수58 △성수일66
△손혜일67 △신동수55 △신용석61
△심용섭70 △안치일73 △오박철61
△오석준82 △원종영62 △유부열66
△유장열68 △윤경섭65 △윤여창53
△이규재50 △이대진65 △이재기53
△이종영70 △임열재64 △장규섭61
△장석효67 △정용문67 △정창주53
△조국광75 △조규태74 △최락현61
△최승호83 △최영규65 △최영태65
△최주섭67 △홍동선56 △홍성표56
◆문리대 △강신성65 △구봉화62
△권민웅62 △권윤희65 △김 승61
△김동선57 △김용성62 △김재봉64
△김하진58 △문희수60 △민경덕59
△박경석55 △박성훈69 △박윤경56
△방석기62 △배길훈65 △신준희57
△안경률67 △안병균67 △안소연65
△오종발68 △원용대48 △유덕상68
△유양수57 △윤호미61 △이동화59
△이문규61 △이시종67 △이연희51
△이영훈64 △이정운54 △이철배58
△장성근63 △정만조65 △정석권66
△정연하61 △정영운60 △정용두53
△조용철64 △전정락69 △최종무68
△하우봉71 △한기호57 △한필순57
△홍두표55 △홍성훈55 △황경호54
△황인광63 △황정식52
◆미대 △곽순화72 △권석봉81
△권순형49 △김규봉88 △김종선74
△손희옥68 △신현장65 △오은주83
△윤명로56 △이동영76 △정종해67
△조성애64 △차명희64
◆법대 △강용식58 △경종철60
△고흥달68 △곽현수72 △권동렬59
△김기현78 △김나복75 △김동건65
△김민교89 △김부찬74 △김성수68
△김수철71 △김승호62 △김영갑74
△김영훈54 △김정보67 △김종구59
△김종성67 △김종철53 △김준규75

△김진세61 △김진환67 △김창희82
△김대영73 △김하남49 △김형배51
△노병수83 △노병수83 △노순길69
△류수열75 △문영길55 △박병명74
△박상근60 △박상일77 △박승문78
△박용수68 △박정삼97 △박정서57
△박준서59 △박희문73 △백대현54
△변학남52 △서동우81 △서명수75
△서창희82 △석광현75 △성낙인69
△성시웅77 △송재웅61 △송찬형69
△안병만60 △안상수64 △안영도65
△안종택73 △양영준72 △오세빈68
△오세희58 △유 훈49 △유재선63
△유정호62 △유충걸64 △유희선59
△윤교중65 △윤성태61 △윤용호71
△윤호일61 △이건행81 △이광택68
△이근화72 △이동명75 △이동춘59
△이민석83 △이문재65 △이상배58
△이상주82 △이선우62 △이성로64
△이성범70 △이성웅61 △이수영74
△이영주58 △이우근67 △이인기74
△이인재73 △이재근82 △이진배65
△임병일80 △장상익72 △정대철62
△정진섭72 △정진영80 △정해운57
△조남욱53 △조문부55 △조순형54
△조용준79 △조정규68 △차찬성72
△최병륜56 △최병도67 △최병호83
△최정현75 △한경구61 △한광수65
△함영업57 △현경대60 △현순도66
△홍성무73
◆사대 △곽후섭52 △구우영76
△김대송70 △김상현81 △김성열75
△김승재71 △김찬근54 △김창선61
△김홍섭73 △남창렬65 △노옥섭66
△목창수66 △문영식73 △민경진71
△민무일65 △박남기50 △박병익74
△박창욱78 △서덕현69 △성기훈71
△심우엽70 △안상수71 △오지연87
△유경근58 △이경복69 △이재성72
△이종완72 △이해익72 △이형준70
△이호준60 △이환기81 △장 호66
△장종택55 △정강주69 △정기탁74
△정선영63 △조규권76 △최운식63
△최태상53 △최현섭59 △하현준78
△한용술71 △한준수76 △한준목71
◆상대 △강웅식58 △구용서60
△권태인46 △권희택56 △김근태65
△김동식61 △김중수66 △김창달53
△김태겸70 △김하두64 △김효석68
△박병준51 △박성석61 △박영호67
△박정기71 △서영택58 △손병두60
△송국현56 △신정도61 △신정철63
△심재엽63 △안재원59 △안재전56
△우찬목55 △윤석현67 △윤종현44
△이갑현61 △이계문70 △이남수62
△이상득57 △이상윤62 △이영휘57
△이홍주60 △임종홍59 △장병구64
△장종의58 △전종환51 △정 용61
△최기동70 △홍용찬64 △황 훈68

◆생활대 △조혜옥59 △전경희78
◆수의대 △김경환80 △김오섭66
△김진구61 △남기용74 △박영수68
△박용호74 △신 심67 △신현일57
△이강문60 △이성모78 △이수창61
△이충범65 △임영철74 △장광호75
△정용근67 △정원공50 △하태흥80
△황의경74
◆약대 △김기술71 △김동춘55
△김태곤71 △남승국70 △백성기59
△오연준56 △원용환78 △윤효선53
△이강현75 △이법진80 △이성구73
△이세영57 △이주형67 △장용택55
△정연진69 △조균행74
◆음대 △김순화70 △남지현85
△신혜정82 △이병옥68 △이한돈65
△하주화73
◆의대 △강세철49 △고광철79
△고영채74 △곽영호88 △김근우61
△김기락68 △김기영53 △김예원68
△김한수84 △남상윤72 △노문진90
△박정범63 △손근찬52 △송영주74
△안제환66 △양성범75 △유명철61
△유영성70 △윤택구51 △이갑순55
△이광우76 △이명철67 △이병훈60
△이원로56 △이응수66 △장경만80
△정 민75 △정경인94 △정경태53
△정종환56 △주권량76 △최인호70
△하정훈79 △한덕종69 △한진희71
△한홍무56 △홍재웅60
◆치대 △권오양74 △김관식69

△김상철73 △김전식71 △남승우63
△박상근66 △박순억66 △박용준54
△박우찬68 △박종만60 △박충차62
△변석두53 △서영수67 △안정모66
△유재석70 △윤학영62 △이민선66
△이상재75 △이석행58 △이재성58
△이지화61 △임채균53 △장상현59
△장은식89 △정영한72 △정원용52
△조달문68 △조유동55 △진기열77
△최양근81 △홍지원83
◆대학원 △김광윤73 △김승호83
△김장준86 △김흥렬81 △박동준83
△박명호76 △박성호95 △박응수81
△여인곤79 △이재봉79 △임장수82
△정기화71 △정문기81 △조대우79
△지충수71 △하두봉56
◆경대원 △김선대72 △이진원68
◆교대원 △송향섭64
◆보대원 △권혁한75 △김덕성71
△김윤신72 △김종오79 △박희서77
△황석전80
◆신대원 △유일연72 △유종수70
◆행대원 △곽대훈78 △권영규80
△김영화68 △박병면82 △박우순76
△반금환70 △서동훈73 △오형국85
△이시경79 △천홍욱84 △최상철64
◆환대원 △김혜천78 △민봉기77
△석영철71 △정병한69
◆AMP △강말길35 △권기술9
△김건종38 △김세래46 △김태환54
△김현수45 △노태식64 △박정호49

△이경태31 △이정식13 △이주현45
△이학용58 △정원영63 △천용택31
◆AIP △김덕표36 △김석겸36
△김영식33 △김익모23 △박장식27
△박한창17 △송기은19 △양희준16
△위재근27 △이명호20 △이충언14
△임종한15 △전영하28 △정창현20
△주영현12 △홍성철34
◆ACAD △곽기영54 △김연수16
△김용기64 △서찬교40 △신은우56
△이진삼21 △장세환56 △전 홍48
△전경애47 △주영순54 △한행수44
△황갑주48
◆ABP △정시택23
◆SGS △김현수14 △김희철12
△남궁근16 △이래원6 △이용일3
△정해순15
◆APC △이완하9 △정만모9
◆HPM △강보영1 △김경태10
△선덕남4 △성치용4 △윤종필16
△이경률14 △이충섭8 △최종기6
△홍광식3
◆AMPP △권영택8 △엄재구6
◆AIC △김영채4 △류진국1
△박경숙8 △박실상9 △이경의5
△이정재2 △임봉순15
◆AFB △강복순2 △김영철1
△김종복1 △문제민4 △정덕교7
◆AMPFRI △김갑주3 △김경호15
△신연경22 △여필동1 △윤동노6
△황해경20

◆ACMP △진성의4 △함천우3
◆FIP △이재병1
◆GLP △강창석14 △김 설8
△남재술9 △신태성4 △양재길5
△이종혁16 △전기세4 △허정순14
◆ALP △백정기6 △백종각12
△조강언6
◆SPARC △김해명13 △박부순13
△이석기11 △이중우8
◆AFP △유철준2

일 반

◆인문대 △강경수97 △강현주93
△김동욱85 △김민혜04 △김수연82
△김원식82 △김운룡83 △김호정05
△류은숙04 △박정진04 △박종태82
△박환택94 △박희일91 △서노원81
△성광정06 △신재철82 △신중진92
△오영식79 △우현아02 △원혜영82
△윤종욱06 △이상용98 △이용기86
△이유경85 △이유정03 △이재열84
△이창운97 △이한구46 △이현국82
△임삼진80 △임채민77 △조연수89
△조희태83 △최 훈85 △최광웅82
△최영은83 △최정우96 △한상희83
△한주형04 △현세영03 △황영준00
◆사회대 △강상주74 △고장훈94
△곽귀병04 △김대휴84 △김보년03
△김석기78 △김용근79 △김재이00
△김준하84 △김태영08 △김현민01
△나한나88 △류연택91 △맹주석81
△문영주05 △박수진04 △박중규97
△박호준00 △박희택96 △백승준00
△백승훈80 △서동섭01 △서봉경80
△송문희97 △신병주95 △신수연05
△신흥순84 △심혜인03 △양제열02
△오종현71 △오필환76 △유승두97
△윤계근78 △윤소영93 △이길호85
△이민호84 △이선아97 △이성춘83
△이소현05 △이용욱86 △이윤희00
△이주희06 △이지현98 △전상호84
△정달섭81 △정운재94 △정운해01
△정지용96 △정흥순92 △조유현86
△조은희05 △조태형88 △주명훈90
△최종석00 △최철영83 △최학철85
△한덕연81 △한상원87 △함지원94
△홍범식99 △황의현79
◆자연대 △강성구82 △권철안77
△김기환98 △김민철02 △김영규79
△김은하06 △김종훈86 △김진규78
△김호신78 △김훈민01 △박주현00
△봉성물04 △성하운74 △소병한93
△송성식84 △송재봉80 △양일우72
△오도규01 △유영만84 △이슬기찬04
△이승종77 △이영근69 △이정현06
△이종구66 △이창현00 △장경래85
△정상원89 △조성현81 △조은비07
△채선규81 △최귀돈81 △최승우74
△최효진00
◆간호대 △김금자03 △김성주81
△김순겸57 △박소현93 △박양자60
△이미형81 △이상미74 △이순임75
△이은정99 △이효원86 △정명자57
△채지혜01 △최경희75
◆경영대 △김건수94 △김기성73
△김성민02 △김아름04 △김의준72
△김지룡83 △김태경02 △나상호85
△문주상83 △박동원77 △박주선86
△성열우77 △안대훈04 △이규만85
△이도호72 △이용석85 △이재일03

△임영주03 △전경호77 △조성훈79
△조호연03 △최석규82
◆공대 △강영미02 △강태갑59
△강태호06 △강현종03 △고희동04
△곽찬문03 △곽한우73 △권희덕71
△김 영63 △김경준03 △김광열79
△김대영71 △김덕원72 △김도수65
△김동관75 △김동규58 △김동규72
△김두현72 △김명호69 △김민철97
△김병선05 △김상돈56 △김상호88
△김선구71 △김성건01 △김성우59
△김승배79 △김여근72 △김용구76
△김원식68 △김원식80 △김을권59
△김인송05 △김인영72 △김재설57
△김재익69 △김재홍99 △김재화52
△김정기64 △김정덕69 △김정철55
△김정혁00 △김종학74 △김주민91
△김주찬75 △김진목71 △김창경78
△김창욱78 △김태문55 △김태한00
△김풍오68 △김학기50 △김학노70
△김형전52 △김휘중04 △문경섭82
△민승기85 △박국배60 △박대휘72
△박동준71 △박동환67 △박상봉87
△박상재84 △박성진03 △박영규58
△박영춘62 △박의종61 △박인오83
△박종철46 △박주태79 △박찬익79
△박한희56 △박현익70 △박형선00
△박희경73 △방교윤64 △백봉근50
△변수근57 △변영화59 △서동영04
△서무석00 △서병은58 △서영태05
△서인원52 △서정렬83 △서준원96
△석성봉55 △손세근74 △송대종53
△송성진77 △송재극52 △신경식49
△신동철97 △신원종71 △안상순65
△안석기03 △안성종02 △안우희64
△안종찬69 △안홍삼63 △양금식84
△양인철64 △양준모85 △오성근58
△오신남60 △오영환68 △오익환56
△오재건61 △오창국92 △오효석74
△오희근81 △우경호78 △우영석02
△원진희48 △유건환56 △유관호01
△유근중97 △유동현05 △유백식84
△유병욱97 △유병준06 △유완상63
△유현준01 △유홍식53 △유희봉66
△윤여경48 △윤영찬67 △이 은00
△이광원69 △이규봉74 △이기화53
△이대혁87 △이민종79 △이병수57
△이상경68 △이상용94 △이상용04
△이상준04 △이상철76 △이석배92
△이선행57 △이성기58 △이성기03
△이성범93 △이성영63 △이승아03
△이승호86 △이시우65 △이신욱52
△이양성48 △이영근54 △이영상08
△이용각77 △이우현52 △이은기84
△이재민99 △이재성00 △이재욱97
△이종규57 △이주진71 △이창원08
△이채욱06 △이태민85 △이태우02
△이택봉74 △이형원04 △이호선91
△이호원97 △임근수03 △임용택55
△임찬우02 △임철호71 △전구현54
△전명석83 △정대석00 △정동섭58
△정병창71 △정상현73 △정성훈05
△정세규93 △정연철76 △정원배59
△정원석97 △정위수02 △정재동00
△정재한03 △정진건64 △정진욱00
△정충선65 △정형근71 △정흥석73
△제해찬74 △조용재51 △조용환60
△조원상80 △조은형03 △조재광81
△조재준02 △조현우00 △조홍균53
△주준호04 △지은환03 △지태용51
△진석현56 △차인환62 △천창호89

△최금영⁶⁴ △최봉식⁶⁹ △최상호⁷⁵
△최시정⁵⁵ △최영국⁸² △최용준⁹⁹
△최정우⁸⁴ △최호진⁷⁸ △하경진⁷⁴
△하규성⁷⁶ △한록희⁷⁸ △한상윤⁵¹
△한용희⁰⁶ △한태식⁷⁸ △한현수⁰³
△허명수⁰⁶ △홍영표⁰² △황보천⁰⁸
△황선근⁶⁶ △황원섭⁹⁸ △황종열⁶⁹
△황호남⁶⁷

◆농대 △강병석⁷⁰ △강용신⁵⁴
△강인석⁸¹ △강인섭⁷³ △계흥석⁹⁰
△권상대⁶¹ △기순호⁶⁶ △김용규⁸³
△김경선⁰⁶ △김경숙⁸² △김대식⁸²
△김동수⁷⁴ △김동춘⁴⁴ △김명주⁸⁴
△김민근⁸¹ △김석희⁰⁰ △김승희⁶⁹
△김양진⁷⁶ △김용관⁸⁵ △김원달⁶⁷
△김윤조⁸⁹ △김인기⁶⁰ △김재인⁵⁸
△김정주⁴⁸ △김종운⁸² △김진근⁷¹
△김진화⁸³ △김태우⁰³ △김현호⁸⁴
△김호일⁶⁸ △김휘전⁶³ △김희국⁷²
△김희창⁶¹ △노광래⁶⁶ △노재후⁶⁰
△박경제⁷⁰ △박기전⁸¹ △박내정⁶⁰
△박동선⁸³ △박동우⁷⁰ △박선영⁶²
△박영철⁸⁶ △박용제⁶⁷ △박재영⁶³
△박진호⁰³ △박태식⁶⁸ △방봉수⁶⁴
△배정웅⁶⁴ △복성해⁶² △서주형⁰¹
△선홍성⁹⁸ △성창동⁶⁷ △손동하⁸⁸
△손성호⁵⁸ △송경호⁵⁶ △송기종⁵⁴
△송지은⁸⁸ △신헌현⁸⁵ △심상래⁰²
△안상남⁵⁸ △안정준⁸⁵ △안희철⁶⁸
△양대성⁹⁸ △양승엽⁵² △양만나⁰⁶
△여규동⁶⁶ △오길현⁷⁶ △오수영⁵⁹
△오종환⁶⁰ △유서호⁹⁴ △육성범⁰⁰
△윤병선⁷⁸ △윤종선⁸⁴ △윤창원⁶⁷
△윤현준⁰⁴ △이경희⁷² △이규환⁸⁹
△이기복⁵³ △이기창⁵¹ △이길상⁰⁶
△이동구⁶⁶ △이병근⁶⁷ △이봉대⁷⁴
△이상인⁶³ △이석순⁶² △이수연⁰⁸
△이승세⁸³ △이승진⁹⁷ △이영치⁶¹
△이영호⁶⁸ △이원재⁸⁰ △이원희⁷³
△이정환⁵⁸ △이재원⁵² △이종섭⁵⁷
△이종화⁵¹ △이중훈⁴⁸ △이지형⁶⁴
△이창규⁷³ △이창진⁸⁹ △이철현⁹²
△이택구⁵⁵ △이해수⁵⁹ △이형익⁶⁴
△임근영⁹¹ △임성만⁸⁴ △장경우⁹⁷
△장래원⁹⁰ △장석환⁵⁸ △장세영⁵⁷
△장정동⁵¹ △전응진⁶⁸ △정경진⁵⁵
△정병열⁶⁹ △정복현⁷⁴ △정연흥⁵⁷
△정중수⁵⁸ △정춘희⁵⁷ △정태삼⁰⁸
△정현열⁸¹ △조빈형⁵⁸ △조영래⁸²
△조우현⁹¹ △조정익⁹³ △조현수⁷⁴
△주승훈⁹⁶ △지규만⁶¹ △채혜인⁰⁶
△최영근⁰³ △최중경⁷⁰ △최한식⁵⁴
△표한승⁹⁹ △한휘석⁵⁷ △홍성택⁶⁴
△홍의표⁵⁸ △황재문⁶⁹ △황재우⁵⁷
△황태상⁰¹

◆문리대 △강길운⁴⁸ △강세원⁵⁶
△고문종⁷⁰ △고상빈⁵⁰ △고석진⁵⁷
△곽만섭⁵⁷ △구자영⁶⁵ △권오광⁵⁹
△김규완⁶⁰ △김근수⁶⁵ △김근호⁵⁶
△김만옥⁵⁹ △김신환⁵² △김영석⁶⁶
△김용훈⁶¹ △김윤수⁵⁷ △김윤철⁶⁷
△김인철⁶⁰ △김주태⁵³ △김찬근⁶⁹
△김창락⁵⁶ △김태동⁵⁴ △김해정⁵⁶
△김흥규⁶⁹ △김흥수⁷⁰ △나기창⁶³
△남성우⁵⁹ △남풍현⁵⁵ △노계원⁵⁸
△노만길⁵⁸ △노영립⁶⁶ △노태돈⁶⁷
△박영애⁵⁶ △박응철⁵⁷ △박희주⁵³
△방형윤⁵⁸ △배광선⁶⁶ △변해룡⁵⁷
△서병국⁵³ △서창모⁶¹ △소광희⁵³
△송창기⁵⁷ △송하영⁵⁸ △신대철⁶³
△신중식⁶⁰ △신희범⁶⁰ △심양홍⁶⁴

△안정시⁶³ △양 원⁵⁵ △양동철⁵⁸
△양완모⁶⁷ △오봉환⁶¹ △오형조⁶¹
△우삼택⁶⁸ △윤석항⁵² △윤태호⁶⁶
△이규호⁷² △이근택⁶⁶ △이동욱⁶³
△이문조⁶³ △이민석⁵⁴ △이민우⁶¹
△이상흙⁵⁴ △이선숙⁶⁹ △이성화⁵⁸
△이승만⁶² △이연재⁵⁶ △이영훈⁶⁵
△이육재⁶⁰ △이정덕⁵⁵ △이종국⁶¹
△이종혁⁵¹ △이준희⁶⁰ △이현기⁵⁴
△이현기⁵⁴ △인오룡⁷⁰ △임채호⁵⁸
△장내식⁶⁵ △장영태⁶⁴ △장종학⁵⁹
△전광현⁵⁷ △전종구⁷⁰ △정용승⁵⁸
△정제우⁵⁷ △정태철⁵⁵ △조희근⁷¹
△주순호⁵¹ △주영태⁶⁰ △주혜경⁶⁸
△최 웅⁶⁹ △최승일⁶¹ △최용욱⁵²
△최인승⁵⁸ △최희승⁶⁰ △표철수⁶⁹
△한남규⁶⁴ △한병윤⁵⁶ △홍순호⁵⁷
△황경구⁵⁷ △황재운⁵³ △황정웅⁴⁵

◆미대 △강경희⁶⁵ △고병복⁵⁶
△곽한익⁵³ △김경화⁰⁴ △김기미⁸¹
△김성연⁰⁵ △김지영⁰¹ △김지열⁵⁶
△김충길⁶⁶ △김혜미⁰⁶ △나명희⁶⁶
△박동진⁸² △박연선⁹³ △서동수⁸⁶
△서효숙⁸¹ △손종목⁸³ △원묘희⁵⁹
△유영준⁵⁸ △이범준⁹⁵ △이인수⁹⁷
△장상의⁵⁹ △전병윤⁰² △전혜란⁰²
△정치환⁶⁰ △정평숙⁵⁸ △채정은⁸¹
△최동신⁶⁰ △최성규⁸³ △최숙경⁵⁹
△허 훈⁵⁶ △황완숙⁸²

◆법대 △고문승⁵⁶ △고영한⁷⁴
△고의중⁹¹ △고재규⁵⁹ △공영규⁵⁹
△곽노현⁷² △곽영욱⁶⁸ △곽정출⁵⁷
△권기수⁷³ △권용모⁹³ △김기석⁵⁹
△김낙훈⁹⁹ △김두표⁶⁹ △김상곤⁸⁶
△김상균⁹² △김상균⁷⁷ △김상기⁶³
△김상태⁴⁸ △김성한⁶⁴ △김성훈⁶²
△김수남⁷⁸ △김시현⁷⁹ △김시형⁵⁸
△김영선⁵⁵ △김용현⁷⁴ △김윤구⁵¹
△김재구⁶⁸ △김재기⁶⁸ △김정균⁷⁶
△김정섭⁶⁶ △김종국⁶⁵ △김준교⁸³
△김준호⁵² △김창기⁵¹ △김형두⁵²
△김호철⁸⁵ △노생만⁸¹ △노용희⁴⁸
△도지훈⁵² △문해성⁵⁸ △박광우⁸⁷
△박문태⁷⁷ △박병민⁶⁹ △박상형⁴⁸
△박옥만⁶⁵ △박재원⁵⁵ △박재현⁰⁰
△박정식⁵¹ △박종국⁶⁵ △박주는⁴⁶
△박주환⁶³ △박찬문⁸⁷ △배기운⁷¹
△배영길⁶⁵ △배진린⁵⁸ △백준현⁷⁸
△서영덕⁵⁷ △서정석⁷⁷ △서정찬⁸²
△성달용⁶⁰ △손승우⁰² △송민호⁹⁷
△신근식⁶³ △신일규⁶⁹ △심한준⁵⁹
△심훈종⁵⁶ △안동완⁸⁹ △안재식⁵⁷
△앙원석⁶³ △어수용⁸² △여정구⁷⁴
△염정훈⁴⁹ △유무곤⁹¹ △유상순⁷⁶
△유성욱⁸¹ △유홍섭⁷⁸ △윤경식⁸¹
△윤규신⁵⁶ △윤석우⁹⁹ △윤우진⁷¹
△윤인성⁸⁷ △윤장석⁸⁹ △윤정석⁵⁵
△이 름⁸² △이균성⁶¹ △이상지⁶³
△이상호⁸⁵ △이석범⁵² △이석수⁸¹
△이선우⁷⁴ △이성규⁹² △이승철⁸¹
△이승철⁹² △이원진⁰⁵ △이지영⁹⁸
△이철승⁷⁸ △이춘근⁵⁷ △이한성⁷⁶
△이현규⁸¹ △임창원⁶⁴ △장명관⁵¹
△장세동⁸⁴ △장재윤⁸² △장지용⁹⁷
△전수성⁶⁶ △정경택⁷⁰ △정광명⁹²
△정선태⁷⁵ △정연상⁷⁷ △정학철⁶⁴
△정현국⁵⁶ △조세연⁵³ △조승우⁹⁴
△조운희⁸⁶ △조해현⁸¹ △최만립⁵⁴
△최석원⁰⁵ △최선재⁰² △최세윤⁰¹
△최원빈⁵³ △최중현⁵⁹ △한영표⁸⁶
△한찬식⁸⁶ △허 민⁰⁵ △홍종현⁶⁴

△황윤성⁷⁹

◆사대 △강명순⁶³ △강신포⁶⁸
△강신포⁵⁵ △강주식⁸³ △고두현⁷²
△권경안⁸² △권태원⁶³ △김남일⁷⁵
△김동균⁶³ △김명수⁶⁸ △김명자⁴⁵
△김상욱⁸⁰ △김성용⁰¹ △김세영⁴⁶
△김수연⁸⁷ △김수희⁰⁵ △김신일⁵⁹
△김여진⁹¹ △김영철⁶⁴ △김왕근⁷⁹
△김용길⁵⁴ △김용석⁵⁴ △김윤정⁰²
△김은숙⁵¹ △김은재⁴⁵ △김인재⁰⁷
△김재철⁷¹ △김재홍⁷³ △김정수⁹⁴
△김정인⁸⁵ △김종옥³⁹ △김종훈⁷⁹
△김주현⁵⁷ △김증자⁶¹ △김지원⁸⁵
△김진권⁵⁴ △김진우⁰² △김진주⁰⁵
△김평원⁰¹ △김필수⁵⁷ △김필태⁸⁰
△김학수⁴⁹ △김현경⁸⁴ △김현근⁵⁹
△김형주⁵⁰ △김혜민⁰⁴ △나병소⁶⁶
△나중구⁵⁹ △남유선⁰⁴ △노경주⁷⁸
△류경숙⁷⁹ △문일성⁵³ △문정대⁵³
△문정매⁰³ △박기석⁶⁵ △박문환⁸²
△박영덕⁴⁹ △박옥주⁵⁰ △박은실⁰²
△박정자⁵⁴ △박종대⁷¹ △박희용⁶⁵
△방영선⁷⁵ △배병일⁵⁸ △배성제⁸¹
△배현경⁹⁹ △백승용⁸⁶ △백춘현⁹⁷
△서동엽⁸⁶ △서부원⁵³ △서의식⁷⁵
△석종복⁷² △성시연⁰¹ △손광성⁵⁷
△손낙철⁴⁹ △손충익⁵⁶ △심상석⁵⁸
△안상윤⁵³ △안석로⁵³ △안준천⁴⁸
△예원혜⁶¹ △오세왕⁶⁷ △유남두⁵⁷
△유봉호⁴⁸ △유양욱⁷⁵ △유영선⁸⁶
△유은지⁰⁵ △윤인식⁶⁵ △윤혜경⁸⁶

△이규환⁴⁶ △이기섭⁷² △이기정⁸⁴
△이남영⁶⁶ △이달덕⁷⁰ △이대형⁷⁶
△이덕수⁶¹ △이도선⁵¹ △이도영⁸²
△이면우⁷⁸ △이무일⁶³ △이방렬⁶⁵
△이보식⁵³ △이상구⁸⁴ △이상규⁵⁶
△이성영⁸¹ △이수찬⁵⁶ △이영복⁶⁸
△이영애⁶⁷ △이영희⁶⁷ △이용호⁷⁰
△이윤하⁶³ △이재완⁷² △이정자⁵⁵
△이주행⁶⁷ △이종일⁸⁰ △이진구⁷¹
△이태준⁴⁸ △이태현⁸² △이한중⁹³
△이현순⁵³ △이현택⁵³ △이희환⁵⁶
△임길선⁸³ △임문식⁵⁶ △장동수⁸²
△장병기⁷¹ △장영호⁷⁷ △장유미⁹⁹
△전상식⁸⁷ △전홍렬⁶⁷ △정경섭⁶⁴
△정근훈⁴⁹ △정덕영⁶² △정덕자⁶⁹
△정동춘⁸⁰ △정희수⁴⁹ △조낙현⁵⁷
△조병완⁵³ △조선형⁵⁹ △조정휘⁶⁰
△최낙춘⁵⁹ △최생인⁵³ △최승환⁵⁶
△추병완⁸¹ △하광언⁶⁰ △한은석⁷⁶
△함희동⁴⁶ △현성준⁷⁸ △홍성숙⁵⁰
△홍운표⁵⁴ △홍학순⁵³

◆상대 △강 영⁶⁴ △강문수⁶⁷
△강화중⁶⁸ △김상필⁵⁶ △김영하⁶¹
△김용은⁵³ △김용일⁶⁸ △김정환⁶⁰
△김종찬⁵⁷ △노일봉⁶⁹ △민용식⁶⁰
△박두섭⁵⁶ △박명식⁵⁹ △박무웅⁶⁴
△박용희⁵³ △박인규⁷⁰ △박좌용⁴⁸
△박지중⁶⁶ △박풍아⁶² △박해용⁵⁶
△박희소⁶² △배지열⁵⁰ △백기환⁵³
△손기혁⁵⁸ △신인수⁵³ △심문섭⁵⁴
△양만기⁶⁴ △윤영원⁵⁵ △이공훈⁶⁰

△이규종⁶⁵ △이기흥⁵⁰ △이상경⁵⁵
△이성위⁶¹ △이성재⁵³ △이준철⁵⁵
△이찬구⁵⁶ △이학영⁵⁴ △이호철⁵⁷
△임종수⁷⁰ △장기남⁶¹ △전경진⁵⁵
△정광홍⁵⁷ △정문화⁷¹ △정상진⁴⁹
△정영국⁶⁵ △정택순⁵³ △조규용⁵³
△조기완⁶⁵ △조선웅⁵¹ △지영식⁵⁷
△채경석⁶¹ △채광목⁶³ △최제현⁴⁹
△최진재⁶⁰ △최창환⁵⁵ △탁승호⁶⁵
△홍성표⁵⁹ △홍순호⁶² △황정길⁶²

◆생활대 △권덕윤⁸⁴ △김동환⁰¹
△김미현⁰² △김순오⁵⁵ △노승희⁸⁴
△손영숙⁷⁶ △안운진⁸⁹ △오광숙⁶⁰
△원명심⁷⁵ △이성란⁸³ △이영자⁶⁵
△이영주⁷⁷ △이용호⁷⁸ △이지현⁰⁴
△이진경⁰² △임영빈⁷⁵ △조진희⁸⁰
△조혜경⁷⁰ △최미연⁷⁹ △최윤정⁸⁴
△최형운⁰⁵

◆수의대 △강구환⁷⁴ △구자록⁸⁸
△권대기⁰³ △권명목⁷⁴ △김병기⁶⁸
△김재권⁶² △김종태⁶⁴ △명수남⁵⁴
△박응복⁴⁸ △박응복⁴⁸ △박전교⁷⁴
△서강문⁸² △서동일⁵⁵ △서창우⁶³
△손병훈⁵⁴ △송회탁⁷⁰ △유병문⁶⁷
△이경환⁶⁰ △이문성⁶⁰ △이상직⁵¹
△이영득⁶³ △정 식⁸⁵ △조기형⁴⁹
△조영선⁷⁸ △조용호⁸³ △주찬용⁶³
△최귀철⁷⁷ △최영일⁵² △최지희⁹⁷

◆약대 △강창율⁷³ △권아영⁰⁴
△김병근⁵³ △김보리⁰⁷ △김부근⁶⁰
△김영일⁶¹ △김용성⁶⁵ △김의영⁸⁰

△김장숙53 △김중선57 △김희정83
△맹민영56 △문경호73 △박건치61
△박경래57 △박정희51 △박찬기56
△송순자60 △심창무55 △양승국53
△옥치완55 △우제남69 △유성열75
△유용근54 △이갑열53 △이강추54
△이동수84 △이성우67 △이영주08
△이인순70 △이태원73 △이해정46
△임수택53 △임현정68 △장동필86
△장승엽74 △정종환73 △조은정00
△주춘대54 △주학유70 △최운정77
△최환관69 △하성상58 △홍순태67
△홍우일61 △홍은기57
◆음대 △김준희96 △김지혜88
△박기범98 △박미애81 △박진경95
△서윤진94 △석종환51 △성양자60
△송태균65 △안희정85 △양은희71
△오유애76 △원호선74 △윤이근74
△이근호53 △이기원76 △이민나00
△이상미84 △이선아00 △이소현07
△이영자56 △이영희83 △이은화06
△이종석72 △이지영87 △임동창61
△장우형72 △장희순89 △전영혜63
△전인창88 △정소라99 △정진원82
△정혜선81 △조강은06 △조대현97
△처경아87 △채완병58 △최문진73
△한태원73 △황윤희79
◆의대 △고종현74 △구본술50
△권영현74 △김경국73 △김도정95
△김수길66 △김연수95 △김원희05
△김장규87 △김종원96 △김종환50
△김찬옥47 △김청수68 △김태현91
△김한섭44 △김홍숙03 △박용화55
△박인서56 △박진홍96 △변영찬76
△신광일59 △신상구68 △신상만61
△신요철54 △신요철54 △심정연85
△안태원83 △윤경선63 △윤용수65
△이봉화51 △이상일75 △이승남76
△이신애07 △이재식81 △이종주57
△전형경88 △정상봉95 △채희동86
△한태진01 △함정욱89 △홍정룡69
◆치대 △강덕삼63 △고영식68
△고홍섭82 △김경현87 △김광빈59
△김광현52 △김동화56 △김명원50
△김병준68 △김봉구78 △김상천65
△김영균48 △김영수57 △김영호58
△김용상61 △김우성62 △김정태66

△김진수70 △김철위57 △노태래63
△명동성61 △문형주79 △박경옥67
△박기욱49 △박승오62 △박용세60
△박재용98 △박주태70 △박태원58
△상기중51 △석진구54 △송재용82
△심정민87 △안 박60 △엄인웅78
△오성진71 △오종우65 △왕상현53
△우건희67 △유동수52 △윤훈용53
△은세원81 △이교인65 △이대경83
△이만섭57 △이만희83 △이배진59
△이병규57 △이병윤51 △이병현76
△이상신56 △이인경82 △이종오76
△정지혜94 △정철표74 △조용우87
△조재익71 △최병건55 △최재인75
△하상완64 △한보균69 △한우석76
△현기용77 △호창진55
◆대학원 △고병순81 △고재필93
△김경진84 △김길관77 △김동식85
△김상복98 △문재석80 △박민수83
△박준수85 △백진호96 △손동익95
△송일민85 △신중훈90 △염시창83
△원종국86 △윤평구79 △이기형83
△이범수85 △이상용88 △이종규88
△이희성81 △장성모79 △장승재83
△정기한81 △정원지78 △정정진77
△진정훈93 △함성일02 △황인자78
◆경대원 △손영수68 △이기현71
△이용석93 △이충렬88 △이태민96
◆MBA △강은영06 △위 견08
△정성훈07
◆교대원 △심수정71
◆국대원 △권경이07 △제민아08
◆보대원 △경광현76 △김귀향79
△김대규64 △김상섭99 △김주희72
△김한상84 △문성환95 △박승기82
△신금호72 △유일준74 △이양재61
△정상조67 △조춘국84 △주은영06
◆신대원 △김기도72 △노재성73
◆치대원 △고재일06
◆행대원 △김광립80 △김영관65
△니원영03 △노선호68 △배용태83
△안병주67 △오 혁76 △유형식67
△이강두71 △이준원87 △이창희82
△장성호85 △최석식83 △한동범81
△한호선72 △허성두71 △홍현선77
◆현대원 △강재훈96 △박찬흥83
△박춘배77 △송장복75 △이정미01

△이춘택71 △정진용87 △한희동84
◆AMP △강병연1 △강신희46
△고시목8 △고윤재20 △권석우15
△금승호58 △김 반46 △김광석37
△김광현55 △김우경58 △김우전7
△김일갑48 △김정도54 △김홍식31
△남기욱32 △류래경69 △박근학51
△박우선61 △박종일44 △서보암62
△서효중3 △성하룡32 △신 함52
△심행진16 △양재열59 △양종민44
△여상빈16 △왕기철42 △유세종56
△이규환41 △이기종43 △이반우52
△이병달28 △이상현8 △이수증26
△이승준69 △이준식35 △이진선36
△이진호32 △이창호37 △임창섭14
△장영섭14 △전길수68 △전이수54
△정귀열59 △정달영8 △정의순4
△정희병45 △조대현58 △조방래40
△조석제62 △조창식47 △조희정67
△주영연9 △최경희38 △하대중64
△함영조82
◆AIP △구향옥37 △권오열22
△김성환43 △김승길10 △김인수10
△김종백43 △김학규26 △김해선26
△박영욱38 △박종호9 △박준호43
△배주호43 △서준하14 △성필선36
△염석훈7 △유명호43 △유영완17
△이명래19 △이상완27 △이세광43
△이인자31 △장승민43 △장철호22
△전재홍43 △정상원39 △정영계33
△조호연39 △최배진15 △최용의43
△한미하5 △허영희26 △홍강지30
◆ACAD △강성만69 △곽기현70
△권진호70 △김광수68 △김기호63
△김길제49 △김진태27 △김철규59
△김춘식41 △김현수30 △문동신55
△문상부69 △박경숙65 △박남신70
△박문희66 △박선만25 △박찬국54
△변승일63 △서형교67 △송종선70
△신현대31 △여익구59 △우종천60
△유성훈34 △유영우35 △유용근38
△윤기섭53 △윤대식10 △윤석준33
△이덕행58 △이문용27 △이보우35
△이정주47 △이효자70 △이희수21
△임동오70 △장해익34 △장호경27
△정용대70 △진진형42 △최돈황70
△최동화29

◆ABP △권준학30 △김방수32
△김수동32 △김정탁23 △김현운20
△박성현36 △박원옥22 △박현철10
△백형욱36 △이병운30 △이은석36
◆SGS △강영안25 △강태만4
△권오신5 △권중환25 △김봉규25
△김성일25 △김호영2 △배기용4
△서순원25 △서주환25 △이경민19
△이계중25 △이영섭25 △이윤정24
△임교상25 △조승연25 △최호운18
◆CHCN △이서현5 △전희숙10
◆APC △강대가4 △김동섭9
△김상규6 △박덕수2 △이재덕5
△정현종9 △조성출5
◆HPM △권강주3 △김성민12
△김소형13 △김용돈21 △김윤철21
△김재중22 △박춘선25 △사재훈20
△정승혜19 △정희순14 △조춘성25
△채상식17 △최용태8 △하덕성5
△한성길16 △한영희22
◆AMPP △강병순6 △강석심11
△강학순6 △고영수10 △김기남11
△김명남5 △김순복11 △김영근11
△김태정11 △김희진11 △박범식11
△서영교11 △여상복11 △오기수11
△유병무11 △윤수관9 △이민식11
△이신복1 △임성기11 △한용욱11
△한희승11
◆AIC △김영식29 △김운식29
△안효원25 △이국세12 △이상인16
△이영훈11 △이용우29 △이재호29
△정승관25 △정재균2
◆AFB △곽 후10 △권병환10
△김 정10 △김관택10 △김국두10
△김유석10 △김재명10 △박찬현10
△박희중10 △방윤석10 △설동현10
△손만석10 △손수근8 △송홍수10
△안경화10 △안순율8 △양근영10
△유동우10 △윤상배10 △정일진10
△허 찬3
◆AMPFRI △강동원27 △김문환27
△김영기27 △손상원20 △양남열27
△염 직27 △이공범27 △이유인7
△이장훈27 △이재곤27 △장선희23
△정관희6 △최동식21 △최서용14
◆ACPMP △김봉성5 △김임배2
△조종수1

◆FIP △고병숙7 △권택율7
△김기현7 △김성모7 △김재산7
△박상기5 △이부일2 △이한석7
△최유진7
◆GLP △계리원하21 △김강호4
△김성훈18 △김용학16 △김태진18
△김한규13 △노재기9 △박동관20
△박관권21 △송하태22 △양기해14
△양승인21 △엄용섭4 △유인숙21
△윤상기21 △이근범21 △이용섭18
△이재환21 △임승호5 △전진규16
△정상규21 △정연택10 △정진구21
△조한중19 △최성덕21 △최윤석15
△홍영표21
◆ALP △곽상욱12 △박 찬12
△배관택12 △소진세12 △오명식12
△이상현11 △정재흠12 △조명제12
△좌상봉12 △최우영12 △황은연12
◆SPARC △김광진8 △김인환2
△김학성6 △황 철7
◆AFP △권혁종6 △박문순6
△이창식6 △장명진6 △최치현6
◆ASP △고희재19 △권경성19
△김상길14 △김원일19 △김진호1
△배동기19 △윤태순3 △이길영3
△이상윤10 △이선재14 △최석기19
△한규태19 △한기운19

12 월 계 : 54,880,550원
평생회비 : 71,100,000원
입 회 비 : 590,000원
총 계 : 1,370,830,637원

홀커밍데이 협찬 감사합니다

〈일금 10만원〉 △이남우 사회82
△이상완 AMP48 △장병천 치대70
△정옥란 SPAR14 △최남해 상대52
△하죽봉 법대63 △한갑수 문리52
(2010.12.22. ~2011.1.20. 협
찬자)



클럽을 놓는 순간 그의 인생은

공 하나를 날리는 것도 홀으로 치는 게 아니지
공을 갖고 노는 일이야 즐거움으로 가득하겠지만
뭔가 자신이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가길 기원하면서
공을 날려 보내는 것이지
세상일이든 개인일이든 순연의 길로 가길
벗어나는 길보다는
그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 법칙에 순행하는 그 노력이 더 힘들지
선의를 향한 전략이지
그린에 뚫어 놓은 구멍을 버리고
들입다 다른 곳으로 가려는 골퍼는 없지
홀 밖으로 벗어나면 오비, 공을 잃고
그린 밖으로 비껴가면 실소, 희망을 잃고
이런 모든 것을 버려야 하지
극복해야 하지
다시 클럽을 부여잡고 정신을 모으지
오직 약속대로 우리는 그린의 홀을 행해서
컵에 공을 담아야 하지
당그랑
그래서 그 소리는 내 심신을 전율케 하고
세상을 울리는 위대한 소리
어떤 유혹도 뿌리치고
어떤 이탈도 뿌리치고
오직 직선을 다해 그린의 컵을 향해서 공을 보내야 하지
내 몸을 벗어나는 것들을 다 추스려서
내 마음을 비껴가는 걸가지를 다 찢아서
그린에 홀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 공동체의 삶에
의지를 불태우는 놀이
한 라운드를 끝내고 클럽을 놓는 순간
그의 인생은 그만큼 깊어지고 넓어졌다

정노천(시인)



■ 골프의 메카를 가다

St. Andrews 골프 코스

골프가 시작된 골프의 성지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에서 북동쪽으로 약 1시간 3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한 St. Andrews 골프 코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퍼블릭 골프장으로써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며 현존하는 골프장 중 가장 오래된 골프의 메카이다.

Pebble Beach, Augusta National과 더불어 세계의 3대 골프장이라 불리는 곳으로 그 중 가장 오래된 골프 코스이기도 하다. 덕분에 예약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미리 예약해 두거나, 비싼 비용을 주고 예약해야 한다.

코스가 완성되고 6세기 동안 골프 게임이 열렸지만, 인공적인 디자인을 더하지 않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인 지형 변화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St. Andrews 골프 코스의 특징은 비바람, 기온 등 기후 변화가 매우 크고, 112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벙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당수 그린의 인, 아웃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의 엄청난 넓이, 대체로 평평하지 않고 파도처럼 굴곡이 있어 퍼팅이 매우 어려운 코스이기도 하다.

이 골프장은 그야말로 '지상 최고이자 최고의 골프장'이라는 수식어가 딱 맞아떨어지는 골프장이다. 1123년 주민을 위한 공유지로 불하됐으며 공식적으로 골프장으로 자리 잡은 것은 1552년이다. 당초 22홀에서 1764년에 18홀로 고정돼 결국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됐다. 19세기 초반 해도 전반 나인과 후반 나인이 나란히 서서 페어웨이와 그린을 함께 공유했다. 이렇게 홀끼리 공유하는 더블 페어웨이와 그린은 7번홀과 11번홀, 4번홀과 14번홀, 5번홀과 13번홀 등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 이 때문에 어떤 홀은 그린 길이가 무려 100야드에 이르기까지도 한다.

브리티시오픈의 개최지답게 올드코스 역시 최고의 화두는 '대자연과의 싸움'이다. 종잡을 수 없는 바닷바람이 매 홀 선수들에게 클럽 선택을 고심하게 만들고, 또 다양한 기술 샷을 요구한다.

페어웨이를 벗어나면 키 높이의 갈대밭이 기다리고 있고, 페어웨이 한복판에도 보이지도 않는 무수한 향아리 벙커가 도사리고 있다. 딱딱

하고 빠른 그린의 선수들에게는 마지막 시련을 선사한다.



The British 오픈

올해로 138회를 맞은 'British Open'이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St. Andrews 올드 코스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제139회 브리티시 오픈 골프대회에서 세계랭킹 54위의 무명 웨스트호이젠이 우승을 차지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마추어 선수로 출전한 정연진의 선전이었다.

브리티시아마추어챔피언십 우승으로 이 대회 출전권을 따낸 정연진은 종합 4언더파 284타로 공동 14위에 올랐고 아마추어 출전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려 실버메달을 받았다. 정연진은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아마추어 출신으로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실버메달을 받았다.

이 대회의 공식 명칭은 'The Open Golf Championship'이며 흔히 줄여서 'The Open'이라고 부른다. 'The Open'이라는 이름은 골프가 영국에서 유래했기에 '유일한, 최초의 혹은 최고의'라는 뜻을 담은 권위 있고 명예로운 대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The British Open' 혹은 전영 오픈이라고 부른다. 브리티시 오픈은 1860년 창설되어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오픈 경기의 기원이다. 전세계 골프의 규칙을 관

장하는 영국왕립골프협회(The Royal & Ancient golf club)가 주관하며 U.S 오픈과 마스터즈, PGA 대회와 더불어 세계 4대 메이저대회의 하나로 미국 외에서 열리는 유일한 메이저대회이기도 하다.

British 오픈은 메이저대회 중 마스터즈, U.S 오픈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되는 대회로 7월 3째 주 주말 금요일부터 4일에 걸쳐 열린다.

British 오픈은 매년 스코틀랜드의 5곳, 잉글랜드의 3곳 총 8개 코스를 순회하는데, 모든 코스가 바닷가 바닷가에 있으며 바닥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한 바운드가 많이 나며 느린 그린과 러프, 악천후 등으로 인해 악명이 높다.(1951년 북 아일랜드의 Royal Portrush에서 British 오픈이 개최된 적이 있으나, 더 이상 이곳에서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72홀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되는 British 오픈은 영국왕립골프협회가 정한 자격을 갖춘 정상급 선수들이 자동출전권자가 되고 나머지는 지역별 예선을 거친 선수들이 출전한다. 마지막 날 최종 결과에서 우승자가 둘일 경우 4개 홀을 정하여 최종 우승자를 결정한다.

제1회 대회는 1860년 10월 17일에 스코틀랜드의 Ayrshire에 있는 Prestwick 골프 클럽(12홀)에서 열린 8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윌리 파크(Willie Park)가 174타의 스코어를 기록해 최초의 챔피언이 됐다. 처음에는 우승자에게 따로 상금이 주어지지 않고 은화 5파운드와 붉은 가죽띠가 달린 은제 벨트를 상품으로 지급했으나 1872년부터 상금과 Claret Jug라는 이름의 트로피로 바뀌었다. 상금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현재 총 상금은 480만 파운드(미화 약 730만 달러)이다. 참가자의 수효는 1890년에는 40명으로 늘어났고, 1892년부터는 출전비를 내게 됐다. 상금이 적은 탓에 한때 참가자가 줄기도 했으나 1960년에 미국의 아놀드 파머가 우승을 차지하자 이듬해부터는 다른 미국 골퍼들도 연이어 참가해 다시 그 권위를 회복했다.

대회 최다승 기록자는 해비 바든으로 총 6회(1896, 1899, 1903, 1911, 1914년) 우승했으며 1999년에는 폴 로리, 2000년에는 타이거 우즈 선수가 챔피언을 차지했다.



■ 주저리 주저리

골프장에 오는 술, 가는 담배

골퍼들 막걸리의 매력에 빠져들다

바야흐로 막걸리가 어느 새 생활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고 있다. 특히 필드에 자리 잡았던 주류 중 막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막걸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골프장에서도 즐겨 마신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수행원들은 박 전 대통령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막걸리였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막걸리가 골프장 특별 메뉴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막걸리 열풍과 함께 그늘집 등에서 막걸리를 판매하는 골프장이 크게 늘고 있는 것. 와인, 맥주, 청주 등으로 대표되는 골프장 주류로 막걸리가 파고들고 있는 추세다.

이전에 골프장에서는 초반에는 소주가 주를 차지했었다. 먹고 마시고 죽자는 분위기에 따라 소주의 판매가 이루어졌었다. 그러다 고급스러운 골프장의 분위기를 타고 양주로 변하는가 싶더니만 와인의 대중화에 의해 그 자리를 와인에게 내줬다. 그리고 아마추어 골퍼들은 갈증 해소를 위해 맥주에 사이다

를 타서 마시는 일명 ‘맥사’의 제조(?)에 의해 맥주의 판매량이 많았었지만 최근에는 ‘서민의 술’로 대표되는 막걸리의 열풍이 뜨겁다.

골프장의 주류 문화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골프장에 나타난 막걸리를 보면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발에 막걸리를 따라 마시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어떤 골퍼들은 골프장에서 마시는 막걸리 맛이 제일 좋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한 관계자는 “골프장에서 판매되는 주류 중 막걸리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이전엔 맥주와 와인이 인기였지만 요즘엔 막걸리를 주문하는 고객들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난해 겪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고 여기에 웰빙바람까지 겹치면서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값이 저렴하고 도수가 낮은 막걸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막걸리 도수는 6~7도 정도이고 가격은 일반 시장에서 막걸

리는 1,000원대 주류로 현명한 소비와 웰빙을 동시에 이룬다는 점이 막걸리의 인식을 좋게 만들고 있다.

주류 문화가 바뀌면서 안주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기존에 멸치와 땅콩 등 마른안주 대신 순대, 파전 등이 인기 메뉴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대신증권-토마토투어가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와 공동으로 열리면서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제주도를 찾았다. 국내를 찾은 선수들 중에 호주 출신의 ‘섹시 골퍼’ 안나 로슨(호주)은 한국 방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으로 막걸리를 꼽으며 “이번에 와서 해물파전과 함께 막걸리를 맛봤는데 엄청 맛있었다. 돌아가서도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이야기했다.

이미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은 막걸리의 인기를 일찌감치 예상하고 주력 상품으로 키웠다. 막걸리를 마실 수 있도록 아예 클럽하우스 앞에 포장마차를 차려놓고 이곳에서 파전과 막걸리를 오래전부터 판매했다.



〈기사제공 : 골프저널〉

뿐만 아니라 그늘집에서도 막걸리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안주를 준비해 매출을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막걸리는 월 평균 7,000명 이상 팔았다고 한다. 스카이72 골프장의 한 관계자는 “막걸리는 이제 골프장 매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 외에 경기 여주의 자유골프장은 스타트하우스에서 막걸리에 도토리묵, 홍어회, 삼겹살 편육을 안주로 내놓아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고 경기 고양의 올림픽골프장은 7번홀 티잉 그라운드 옆의 그늘집에서 판매하고 있는 막걸리에 파전, 닭꼬치 등의 메뉴가 골퍼들이 찾는 인기메뉴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전남 순천의 파인힐스골프장도레이크코스 와 힐스코스 그늘집에서 옛날순대 등의 안주에 동동주를 판매하고 있다. 막걸리를 찾는 골퍼들은 대부분 “라운드를 하다보면 출출한데 막걸리 한두잔을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포만감도 생겨 일석이조이다.”라며 막걸리를 마시는 이유를 설명했다.

골프계에 불어오는 금연바람



〈기사제공 : 골프저널〉

“담배를 왜 피웁니까?”, “담배요! 습관성이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기에 피우는 담배 맛 말고는 하루 종일 그냥 습관적으로 피울 뿐입니다.”, “아침 기상 후 공복기의 담배 맛만 안다? 그게 나쁘다고 하던데 맛도 모르는 담배를 왜 피우는지” 우리 사무실에서 대화가 흘러나왔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공부 잘 하는 사람,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금연(禁煙)에 성공한 사람이랑은 같이 놀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독하기 때문에 노는 물이 다르다라는 말을 한다.

2011년이 시작하면서 금연을 신년 계획으로 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몸에도 좋지 않고 2011년 3월 1일부터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 서울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면서 돈이 나가는 것도 아깝다. 하지만 그 중에 금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 의지가 강해서 지키는가 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신년 금연 계획이 작심삼일이 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직 늦지는 않았다. 지금 당장 금연을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사전적으로 금연은 형법, 산업안전규제 등의 공공 정책으로, 작업장 또는 그 밖의 공공시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담배를 소지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담배는 피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옆에 없어도 몸에 묻었던 담배 연기에 의해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그동안의 여러 연구를 통해, 간접흡연은 직접 흡연과 동일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간접흡연의 주요 피해로는 폐암, 심혈관질환과 폐기종, 기관지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 등이 있다. 특히, 메타분석으로 얻은 결과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는 배우자와 결혼한 비흡연자는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20~30% 가량 높다. 또한, 직장에서 담배연기에 노출된 비흡연자는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16~19% 정도 증가했다. 2002년에 행해진 WHO의 연구에 따르면, 비흡연자들은 흡연자와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된다. 생담배 연기에는 벤조피렌을 비롯한 69종의 알려진 발암물질과 다른 탄화수소 물질들, 방사성 물질들이 포함돼 있다. 담배 회사 자체 연구 결과에서도 부류연에서의 발암물질 농도가 주류연보다 높았다. 미국 NCI나 미국국립보건원, 세계 보건 기구(WHO)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도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이다.

골프계에서도 금연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골프계의 악동’ 존 델리(43·미국)는 악동이라는 별명답게 별거벗고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다 체포되는가 하면, 알콜중독과 약물중독으로 폐인의 삶을 산 바 있다. 그 때문에 지난 2008년 PGA투어로부터 6개월간 출장정지를 당했었다.

그런 그가 2009년 5월에 투어에 복귀하며 약 120kg였던 몸무게를 30kg정도 감량하며 날씬해진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다.

델리의 트레이드마크는 골프 대회가 진행되는 내내 뻑뻑 담배연기를 내뿜는 모습이다. 델리는 티잉 그라운드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페어웨이에서 이동 중에서도 계속 피웠으며 심지어는 퍼팅 직전의 상황에서도 깃연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미 골프계에서는 ‘존 델리=담배’라는 공식이 설립될 정도로 애연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 그가 얼마 전에 금연을 시작하려는 듯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했다. 지난 2010년 12월 29일(한국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술을 끊고 살을 뺐지만 아직 담배는 끊지 않았다. 언젠가는 끊게 될 것 같은데...”라고 말끝을 흐리며 속마음을 이야기했다.

국내 골프장에서도 2002년부터 쾌적한 환경과 산불 예방을 위해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금연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했다. 담배를 팔지 않는 골프장도 30%가 넘는다. 그리고 최근에는 캐나다 밴쿠버는 금연의무화 지역에 골프장을 포함했고, 적발 시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더불어 골프장내 흡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 내 흡연에 반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

■ 핀앤홀

〈기사제공 : 골프저널〉



드라마 여행지로 떠나는 골프 여행

골프와 추억을 한꺼번에

전국 평균 시청률 40%를 넘으며 인기 고공행진을 했던 KBS 2TV 수목드라마 '제빵왕 김탁구'가 2010년 9월 16일에 종영을 했다. 이 드라마는 인기만큼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촬영장소를 찾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늘고 있다. 청주 수암골 드라마 촬영지, W갤러리, 청원 운보의 집 등은 화제가 됐다. 특히 구일중 회장택으로 나온 '청남대'는 지난해보다 관광객이 51%나 증가했다고 한다. 청남대는 '남쪽에 있는 청와대'란 뜻으로 전두환 전대통령의 뜻에 따라 지어졌으며 대청호 변에 있는 과거 대통령 별장으로 대청호와 금강의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하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에 개방되면서 본격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9홀 규모의 미니골프장이 있어 골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골퍼들은 드라마 촬영지로 나오는 골프장, 리조트 등에 들리며 가족들과 한적한 여행을 즐기고 있다. 그래서 2011년 드라마 여행지로 떠나는 골프 여행을 준비해 봤다.

■ 파인리조트



'파인리조트'는 KBS 2TV '천하무적 이평강', SBS 금요드라마 '소금인형', '날아오르다', MBC ESPN '이경규의 골프의 신' 등 각종 프로

그램을 오가며 드라마 촬영지로 널리 알려져 왔다.

'파인리조트'는 울창한 송림과 동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개장 초기부터 골퍼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파인리에서의 플레이는 설악의 웅장함과 동해바다의 전경에 넋을 놓게 되는 즐거움이 일품이다.

양잔디로 시공해 사시사철 푸른 잔디 위에서 백구의 향연을 즐길 수 있고, 코스 곳곳에는 해저드와 벙커가 맞물린 비치 벙커가 마치 해변에 조성된 코스 같은 색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 담양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



'담양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은 방영 전부터 고현정에 대한 기대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란 시나리오로 큰 이슈가 된 SBS '대물'과 시청률 28%를 웃돌았던 KBS 2TV '꽃보다 남자', '아가씨를 부탁해' 등을 찍으며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촬영 장소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2007년 12월 27일에 개장한 '담양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은 추월산 자락 광활한 초지 위에 펼쳐지는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경관, 원초적인 수림과 계곡, 완만한 능선과 자연스런 계류 등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 인상적이다.

아테네 신전을 옮겨 놓은 듯한 클럽하우스는 격조 높은 인테리어, 호텔 스위트룸과 같은 골프텔 등의 부대시설을 갖췄다.

■ 힐튼남해골프스파리조트

골프장과 스파시설을 갖춘 '힐튼남해골프스파리조트' 역시 지난 2006년 MBC에서 방영된 '환상의 커플' 주 촬영 무대로 등장하면서 홍보 효과를 누렸다. 또한 KBS 2TV 월화미니시리즈 '꽃보다 남자' 등의 드라마를 찍으면서 이국적인 분위기의 명소로 유명해졌다. 남해안 다도해 아름다운 섬, 남해군에 자리 잡은 '힐튼남해골프스파리조트'는 세계적인 호텔 리조트 체인 그룹 힐튼에서 직접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힐튼 월드 와이드 리조트'이다.

'힐튼남해골프스파리조트'는 현대적 이면서 도심 속에 자연 그대로인 듯한 디자인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18홀의 PGA 챔피언십 골프코스 와 최고급 스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일 년 내내 골프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한국의 몰디브'이다.



■ 아난티클럽서울컨트리클럽

'아난티클럽서울컨트리클럽(옛 리츠 칼튼)'은 지난 2002년 SBS를 통해 방 송된 국내 최초의 골프 드라마 '라이벌'의 촬영지이다. 또한 아난티클럽서울의 클럽하우스가 MBC 특별기획드라마 '내 여자'에서 회장 저택으로 사용됐다. 드라마에서 보여준 넓은 정원와 호수는 바로 골프장 필드와 주변 모습이었다. '아난티클럽서울컨트리클럽'은 미국 오거스타내셔널골프

클럽과 같이 '숲 속에 자리한 제대로 된 코스'다. 60만평 대지에 20미터는 족히 넘는 잣나무와 백자작나무, 느티 나무 군락들이 코스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그 어느 곳보다 프라이빗한 클럽을 연상시킨다. 4계절 내내 푸른 양잔디 위에 백자작나무가 시원하게 뻗어 있는 비경을 볼 수 있다. 골프코스 내에는 14개의 거대한 폰드가 흐르고 있는데 이곳에 드리워지는 숲의 그림자는 마치 캐나다 어느 산 속의 호수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 파인스톤컨트리클럽



KBS주말특별기획 드라마 '열혈장사꾼'의 촬영지 파인스톤컨트리클럽은 충남 당진에 위치한 쓸모없는 땅에서 명품 퍼블릭 코스를 만들었다. '골프의 전설' 잭 니클라우스의 수석디자이너 톰 펙이 직접 설계해 서해의 아

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리고 각각의 코스마다 다이내믹한 구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장 7,338야드로 파인코스 와 스톤 코스로 나누어진 총 18홀의 퍼블릭코스로 구성됐다.

울창한 소나무와 바위, 계곡과 능선, 완만한 야산과 평지, 분수와 호수 위의 흑고니까지 특별한 자연과의 만남을 느낄 수 있지만 라운드에서는 모두 헤쳐 나가야 할 역경이 되기 때문에 골퍼들의 잠재된 도전정신을 일깨운다. 그리고 자연과 사람, 생활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주거에 필요한 기준을 한 차원 높은 스톤파크 골프빌리지가 있다.

■ 하이원리조트



2007년 대한민국 만화대상 대통령상을 받았던 이현세의 골프만화 ‘버디’가 드라마로 탄생한다. ‘버디버디’를 촬영하고 있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하이원리조트는 스키장, 골프장, 카지노 시설을 갖춘 대규모 종합 위락시설이다. 해발 1,137m 국내 최고의 골프장인 하이

■ 라온골프클럽

라온골프클럽과 자회사인 더마파크, 라온승마클럽, 라온목장이 최근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곳을 배경으로 촬영한 드라마는 총 4편이다. KBS 2TV 월화미니시리즈 ‘꽃보다 남자’, 중국 CCTV와 국내 케이블방송 CU미디어가 공동 기획·제작하는 드라마 ‘내 사랑 제주’, MBC 아침드라마 ‘분홍립스틱’, ‘울인2’로 기획된 SBS 수목드라마 ‘태양을 삼켜라’, SBS 드라마

원컨트리클럽은 파72, 전장 6,519m의 18홀 퍼블릭 골프장이다.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보여주는 양잔디와 모던하면서도 섬세한 코스 설계는 골퍼의 도전 욕구를 자극해 흥미롭고 다채로운 라운드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고원지대에 조성된 만큼 빼어난 자연경관과 코스 레이아웃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넓은 고원에서 세상을 굽어보며 라운드하는 색다른 묘미가 골퍼 마니아들을 매료 시키고 있다. 또한, 특 2급 호텔인 하이원 호텔이 197개의 객실과 다양한 이용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겸한 고원 휴양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

‘사랑은 아름다워’의 촬영지로 등장했다. 제주도 라온골프클럽은 아주 낮은 지대에 위치(해발 130~180m)해 제주 골프코스의 특징이자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바람, 눈, 안개, 비의 영향이 가장 적다.

라온골프클럽은 스코틀랜드 골프 영웅 콜린 몽고메리가 코스설계를 맡아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살린 도전적이며 편안한 코스를 마련했다.

특히 모든 홀에서 IP 지점이 보여 프로골퍼는 물론 주말 골퍼까지, 누구에게나 도전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 중문골프클럽

SBS 드라마 ‘울인’에서 이병헌과 유민이 함께한 골프장으로 유명한 중문골프클럽은 해안코스 14번, 15번 홀에서 이병헌의 골프 실력이 공개되기도 했었다.

중문골프클럽은 해안 절벽과 깊은 계곡을 낀 해안 골프코스로 천혜의 자연절경을 만끽하면서 늘 푸른 잔디를 밟으며 사계절 마음껏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세계적인 종합관광 휴양지인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중문골프클럽은

■ 해비치리조트

‘불새리안’이란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MBC 드라마 ‘불새’의 촬영지는 제주 남제주군에 위치한 ‘해비치리조트’이다. 이곳에서 ‘불새’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향’, ‘나쁜 남자’, ‘아이리스’ 등 많은 드라마를 촬영했다. 그리고 푸른 바다가 펼쳐진 6성급 해비치리조트와 해발 270m의 시원한 초원에서의 라운드는 프리미엄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즐거움



국내외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퍼블릭코스로 운영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는 여미지식물원, 퍼시픽랜드, 중문해수욕장, 천제연폭포 등 명소가 있어 모두에게 여행 만족을 안겨준다.

을 전해준다. 자연이 만들고 품격이 빚어낸 다이내믹한 코스에서 때론 강한 모험심을 자극하는 코스로, 때론 섬세함이 느껴지는 정교한 코스로 골퍼들을 유혹하고 있다.

거대한 산과 계곡을 지나는 다이내믹한 코스와 섬세한 기술의 샷을 필요로 하는 정교한 코스가 이어져 모험심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준다.

남코스는 라운드 내내 남태평양을 조망할 수 있고 북코스는 해저드가 많이 있으며 한라산 정상을 향해 플레이할 수 있다.

■ 패션제안서

2011년 봄철, 골프웨어 패션 전략

건강과 패션을 위한 패션 제안

옷차림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제2의 얼굴이다. 이처럼 옷차림에 따라 단점이 보완되기도 하고 장점이 부각되기도 한다. 그래서 라운드를 나갈 때 당신의 패션전략이 당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 새롭게 다가오는 2011년 봄철의 골프시즌이 시작되면 필드 위에서 개성을 뽐내면서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리더가 되어보자.

2011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골퍼들은 새롭게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골퍼들의 마음은 봄을 상상하며 반쯤 골프장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리고 필드 위의 패션리더들은 올해는 어떤 옷으로 화려하게 장식할지 고민하는 시기이다. 그렇다면 2011년 봄, 필드 위의 패션 유행을 알아보기로 하자.

STCO 석계점의 송영운 사장은 2011년 봄철 필드 위의 패션 경향을 보면 그 어느 해보다 밝고 화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의 골프웨어를 주도할 색상을 보면 경쾌한 느낌의 옷이 필드를 수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밝고 감각적인 원색 계열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옐로우 컬러 아이템이 유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골프웨어의 컬러, 디자인과 더불어 기능성이 부각될 것이며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는 실용성도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봄철 위스트 골프웨어 패션에 대해서 지나치게 화려한 코디, 너무 딱딱한 느낌의 코디, 지나친

명품 브랜드의 코디 등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2011년 패션에서는 색상이 화려해진 만큼 자칫 부담스러운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보이기 위한 코디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원색톤의 경우 상의 한 아이템에 너무 많은 컬러보다는 한두 가지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고 하의는 깔끔한 화이트, 블랙, 베이지 계열로 입는 것이 세련돼 보인다. 또 모자나 액세서리를 고를 때는 의상과 같은 계열의 색상을 매치시켜야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2011년 봄철 베스트 골프웨어 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코디법을 알면 좋을까? 먼저 여성 골퍼들에게는 파스텔톤(Pastel tone)의 화사한 골프코디를 제안한다. 귀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파스텔 색상의 옷과 밝고 선명한 색상의 옷에 여러 가지 아이템을 믹스 매치하면 좋다. 다음으로 봄철 활동적이고 젊은 이미지 연출하기 위해 화사한 원색에 줄무늬나 플라워 등을 다양하게 섞

으면 좋다. 그리고 간결한 디자인에 생동감 있는 선명한 색상을 코디하면 경쾌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다양한 패션방법이 나오고 있지만 전통적인 방법의 코디도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패션컬러의 고전인 흰색, 회색, 검정 계열의 모노톤으로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 연출하려는 골퍼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어떤 옷과 입어도 조화가 되는 기본색인 베이지, 카키, 브라운, 올리브그린 등과 같은 내추럴톤(Natural tone)의 코디도 많이 찾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봄이 ‘필드 위의 패셔니스트’들은 패션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 하지만 봄철 패션만 따지기에는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꽃샘추위와 황사가 많은 골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그래서 패션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안을 해보겠다. 꽃샘추위, 일교차가 큰 날씨 등을 대비해 트렌치코트와 가볍고 보온이 잘되며 방수처리된 기능성 점퍼를 추천하겠다. 장식이 많은 옷보다는 활동하기 좋은 옷을 입는 것이 건강에 좋다.

황사에 대비한 옷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황사 때에는 옷에 먼지가 많이 붙으므로 패션 컬러로 화이트나 아이보리처럼 먼지가 묻기 쉬운 컬러를 피하고 티가 나지 않는 어두운 컬러나 베이지 톤의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황사는 중금속을 함유한 유해물질이기에 피부에 독이 된다. 가급적

긴 옷을 입어 피부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적게 해야한다. 골프모자를 착용하고 방수처리가 된 옷을 입어 미세 먼지가 섬유 틈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다. 황사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골프 재킷은 미세 먼지가 들러붙기 쉬운 니트소재보다는 방수·방풍기능이 있는 화섬소재 재킷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스트레치가 돼 스윙이 편안한 바람막이 상의와 은은한 광택과 구김 없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삼브레이 점퍼는 기본 방수 기능이 있어 황사시즌 골퍼들에게는 중요한 아이템이다.

황사가 찾아왔을 때 라운드를 했다면 뒷마무리가 중요하다. 먼저 귀가 시에는 옷을 잘 털고 집안에 들어오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황사 먼지에 노출된 골프웨어는 세제를 푼 물에 담근 뒤 미세 먼지와 모래를 충분히 없앤 다음 세탁하는 애벌 세탁 방법을 해야 한다.



글 / 송영운 STCO 석계점 사장

■ 골프웨어 대표 브랜드 'JDX'

국민브랜드로 가치 높여 볼류화 나서



㈜신한코리아(대표이사 김한철)의 JDX골프는 2010년 3월 브랜드 론칭을 하면서 작년 한해 매출 800억을 달성하여 기능성과 패션성을 갖춘 브랜드로 확고한 위치를 구축했다. 현재 문정동을 비롯 전국 15여개의 직영점과 140여개의 매장을 두고 있는 골프 의류, 용품 업체로 해마다 꾸준히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JDX 브랜드의 경쟁력은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한 제품 출시를 위한 끊임없는 투자에 있다. 골프 브랜드로서 기능성을 우선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현재 시장상황에서 JDX는 기능성에 더해 연령과 디자인을 고려한 세분화된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밝고 건강한 이미지의 JDX라인(30세~45세), 하이테크 기능소재와 인체공학적인 라인을 고려한 DO GOLFER들을 위한 PLUS라인(30세~40세), 트렌드를 중시하며 젊음과 스타일리쉬한 감성의 고급스러운 CHIC라인(25세~35세). JDX가 물고 온 차별화한 디자인은 세대를 통틀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어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며 JDX만의 핵심 전력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전문골프 브랜드로서 타 브랜드와의 차별적 전략 아이템으로 캐디백과 골프슈즈는 물론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한 X-BODYTEC이너웨어, 3PC/2PC PGA공식 골프공, 선글라스, JDX커머스 캐릭터를 활용한 볼마커와 다양한 골프 소품들을 개발했다. 또

DO GOLFER들에게 모든 것을 제안할 수 있고, 퀄리티 높은 상품을 공급해, 토털 골프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용품을 확대 전개하고 있다.

JDX골프는 전문브랜드로서 안착하기 위해 올해까지 수익을 홍보마케팅에 재투자 할 것이며 매출의 10%에 상당하는 비중으로 올인 할 계획이다. 또한 물량도 전년 대비 10~15%늘려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대리점의 판매증진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전격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3사의 드라마제작지원과 스포츠 중계 PPL 협찬, 하나투어와 함께 골프챌린지 투어 개최, 의류업체 최초 공익광고 진행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고객과 함께할 수 있는 브랜드로서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JDX 골프는 올 한해 동안 지상과 방송 3사에 골프용품, 액세서리, 소품에 대한 단독 드라마PPL을 진행하고 있다. 드라마에 노출되는 골프용품과 액세서리, 기타 소품에 단독 계약을 체결해 모든 골프핀에서는 'JDX골프'의 제품만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24시간의 주인공>이라는 2011년 슬로건을 바탕으로 1월부터 TV공익광고 캠페인을 진행해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인지도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JDX는 올 봄 신상품부터 출시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PL(Product Liability)보험을 가입해 시행하고 있다. PL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이란 <각종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그 제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 만약 소비자가 JDX의 의류를 구입, 착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알러지, 상해 발생시 최고 1억원을 보상하게 된다. 이로써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판매 후 문제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JDX의 의지가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는 마케팅으로 전개되어 브랜드 신뢰도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다.

JDX골프는 이번 S/S에 꽃과 과일을 모티브로 한 경쾌함과 로맨틱한 스타일을 선보임으로 다시 한번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과일과 꽃을 주된 테마로 선정하고 상품구성을 다양화했다. 과일을 모티브로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재미있고 경쾌한 분위기로 생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플라워 패턴을 로고나 캐릭터 형태에 도입하여 로맨틱한 표현을 시도했다. 또 마린 웨이브를 사용해 리조트 룩을 대표하는 아이콘들을 기법들로 다양화하고 파도의 율동감을 활용하여 활기찬 여름을 느낄 수 있다.

잔디로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끝나고 JDX골프는 2010년 3월 브랜드 론칭을 하면서 회사와 브랜드 모두 거듭 성장하고 있다. 1,300평 규모의 수원 물류창고 준공과, 디자인 경쟁력 강화,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유통망 확장 등이 계속되었다.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JDX는 2011년을 기점으로 혁신과 변화를

피하고 있다. 약 10년간 남다른 신뢰를 쌓아온 JDX는 기존 고객층의 유지와 더불어 젊고 신선한 이미지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국의 직영점과 각 매장은 신규집기와 신 메뉴얼로 JDX골프의 스포티즘과 3가지 라인별 섹션을 엮을 수 있게 구성하고, 매장 인테리어는 점점 더 젊어지고 있는 DO GOLFER의 니즈를 반영해, 칼라별로 존인을 구성해 고객들 또한 손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변화를 줬다.

올해부터 새 슬로건으로 <24시간의 주인공>을 선정하고 TV 공익광고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다. 김한철 대표이사는 "JDX의 어원에서 찾은 24시간의 기쁨에 더불어 우리 고객들을 언제나 24시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겠다는 JDX의 의지를 담은 슬로건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통망은 변화된 로드숍 환경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도심 외곽 및 나들목 등의 타운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10여년간 늘 고객 우선주의로 변치 않는 브랜드 가치를 지켜온 JDX. 향후 JDX가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가 주목되는 것은 그것이 브랜드 하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한국 골프웨어 시장의, 나아가 한국 패션사의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JDX는 올해 매출을 900억 달성, 대리점 150개 확장으로 잡고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드라마, 스포츠중계, 라디오 등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골프 챌린지 투어와 같은 행사로 실제 골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2년까지는 광고에 올인하고 기획, 디자인의 혁신 및 직원들과 합심해서 확고하게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브랜드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보도자료 2011년 2월>

◎ 물을 알면 타수를 줄일 수 있다 ◎

김경태 경기도골프협회 전무이사는 골프를 하는데 있어서 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물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3타에서 5타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유익한 물 정보를 살펴보겠다.

1. 해저드에서는 볼을 확인하고 공을 치는 것이 좋다

볼이 해저드(벙커·워터해저드)에 박혔는데 윗부분만 보인다. 이때 자신의 볼로 짐작하고 확인 없이 치는 골퍼들이 있는데 그러다 '오구 플레이'로 2벌타를 받을 수 있다. 2008년 개정된 규칙은 해저드에서 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동반자에게 얘기한 후 볼을 집어 들어 볼 수 있게 했다. 해저드에서는 반드시 볼을 확인하고 쳐야 벌타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티샷은 평평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

티잉그라운드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자신에게 오게 되어 있다. 티잉그라운드는 티마커 후방으로 두 클럽 길이까지다. 따라서 찾아보면 평평한 곳이 얼마든지 있다. 티업할 땐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언플레이어를 볼 규정 충분히 이용을 하라

볼이 깊은 러프에 빠졌는데 그 옆은 큰 바위여서 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언플레이어를 볼 처리를 하고 두 클럽 길이 내에 드롭하려고 보니 그곳 역시 풀이 길다. 그럴 땐 다른 옵션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1벌타 후 종전 쳤던 지점으로 돌아가

거나, 볼과 홀을 연결하는 후방선상(거리 제한 없음)에 드롭하고 치는 길이 있다. 라이가 좋지 않은 볼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루스 임페디먼트에서도 구제 된다

볼 옆에 골프장 측에서 잘라놓은 큰 통나무가 있다.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많은 골프장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런 통나무는 고정돼 있지 않고 생장하고 있지 않으며 땅에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루스 임페디먼트다. 따라서 벌타 없이 구제받을 수 있다. 볼이 움직이지 않는 범위에서 통나무를 치우고 샷을 하면 된다.

5. 카트도로에서 한 클럽 이상 벗어날 수 있다

볼이 카트도로(움직일 수 없는 인공장애물)에 멈추게 되면 카트도로 가장자리에서 한 클럽 길이 내에 드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골퍼가 많이 있다. 그래서 도로 옆 깊은 러프에 드롭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골퍼들이 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도로 옆에 '니어리스트 포인트'(도로를 피하고 홀에 가깝지 않은 곳으로 볼과 가장 가까운 지점)를 정한 뒤 그곳으로부터 한 클럽 길이 내에 드롭하고 쳐야 한다. 그러면 도로로부터 한 클럽 길이 너머까지 드롭할 수 있게 되어 라이에 대한 선택의 폭이 커진다.

■ SILVER GOLF

노인에게 골프장을 개방하라

의료비 절감 효과, 국가 경제 효과 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을 해야한다



노령화 시대, 골프는 국가적인 필수 운동

지구가 늙어가고 있다. 21세기 들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은 고령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러시아 등 일부 신흥국가들에서도 고령화 흐름이 심상찮게 진행되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유엔의 인구추계 자료를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는 일본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노령화도 경고등이 켜져 있는 상태이다.

대한민국은 201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비율이 11%를 나타내며 세계 20위의 높은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고령자 비율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지목되는 나라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인 2030년경에는 65세 이상의 비율이 23.2%를 나타내며 세계 8위의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보장 제도를 잘 갖춘 핀란드의 한 건강 보고서에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국가에서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렸다. “달리기 30분, 웨이트 트레이닝 30분, 최소한 주 3회 이상을 하라.” 하지만 몇 년 뒤 결과를 보니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유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안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처방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낸 처방은 “반드시 걸어서 주 2회 정도 골프를 즐겨라.”라고 한다. 그리고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 결과 노인들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의료비 지출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것이다. 진정한 복지사회로 가려면 기초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젊어서 열심히 일한 노인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골프는 국가적인 차원의 대중화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골프는 다양한 측면에서 수용자에게 수렴되고 있는 폭넓은 활동임에는 틀림없다. 그만큼 다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아우를 수 없는 포괄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골프의 장점을 살펴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아 기초 체력을 유지하며 정신 집중으로 그 진가를 올릴 수 있는 지략과 용기를 필요로 해 머리회전을 돕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더불어 골프는 운동 방법이 과학적인 뿐만 아니라 머리와 고도의 정밀성을 필요로 하는 종합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골프는 18홀 플레이를 하는 동안 대략 5시간 정도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8~10km의 많은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다. 또한 잔디 위를 걷기 때문에 다리 관절 등에 부담을 주지 않고 걸을 수 있어 노인이나 관절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좋다.

이미 70세가 넘는 연로한 장수(長壽)골퍼들을 ‘그랜드 시니어’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 골프는 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운동이다. 예전에는 서울컨트리클럽에선 70세 이상 된 연로한 노년층에게 ‘그린피’를 감면해 주는 예우를 했었다. 이것은 서울컨트리클럽 초창기에 이순용 씨에 의해 이루어진 전통이다. 한때는 연로한 인생 선배들에게 붉은 재킷을 입혀드려 예우 대상자들을 돋보이게도 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를 맞아 마케팅 전략으로 골프장업계가 ‘그린 실버타

운 시대’에 대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품격 있는 노년을 원하는 수요와 VIP 마케팅 전략으로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극소수에 불과한 노년의 골프 문화를 사회고령화와 골프대중화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포털 사이트 ‘유어스테이지(www.yourstage.com)’를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파트너즈(대표 박은경)는 ‘시니어 온라인 골프 서비스’ 사업을 제휴하고 50세 이상의 사용자들을 상대로 보다 체계적인 시니어골프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을 포함해 건강, 여행, 문화, 온라인 커뮤니티, 쇼핑물 등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있다. 이처럼 시니어를 위한 콘텐츠가 다양하게 개발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의료비 절감 효과, 국가 경제 효과 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년층에 골프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규칙적으로 골프를 하면 16조원을 버는 효과

국가적 차원에서 골프를 제공하고자 말하면 “뭘 소리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 및 경제 시너지 효과를 의료비 및 국가 지출 비용을 비교해 알아보면 정답은 나올 것이다. 우리 국민이 매주 1~2회 규칙적으로 스포츠활동, 특히 골프를 한다면 나라 전체적으로 연간 16조원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규칙적인 운동이 당뇨병, 뇌졸중, 동맥질환 등 주요 질병 발병률을 최대 16%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10월 17일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 지원을 통해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체육활동이 경제활동에 미

치는 구체적인 효과를 객관적 수치로 입증하는 과학적인 검증·연구 실시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를 한 적이 있다.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의 경제적 효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당뇨병, 뇌졸중 등 주요 질병 발병률 최대 16% 적고, 의료서비스 이용빈도 1.5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모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연평균 80,000원, 국가적으로는 1년에 최대 2조 8,000억원의 잠재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의료비 절감분은 12종의 질병만 따진 1인당 최소 금액이 6,200원이고 전체 질병을 감안하면 80,000원까지 커진다. 여기서 질병으로 치료받거나 요양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반대 급부로 생산성 증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연간 1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즉 모든 국민이 주 1~2회 체육활동을 하면 개인 생산성 증가를 포함한 경제효과는 1인당 연간 460,000원, 성인인구 전체로는 국가 전체적으로 약 16조원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자의 체육활동 월 소비액은 111,701원, 본인이 느끼는 효과금액은 월평균 794,800원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의 체육활동 참여는 년 5조 7,148억원의 민간 소비로, 생산유발액은 11조 8,548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4조 8,277억원, 취업유발인원은 11만 962명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박일혁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100만 명이 넘는 표본을 대상으로 얻어냈다. 모든 국민이 다 운동을 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체육활동의 경제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노년층의 스포츠 활동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기사제공 : 골프저널〉